

성신 독후감상 수상작 모음집

리딩트리9

Reading Tree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리딩트리9 Reading Tree

성신 독후감상 수상작 모음집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리딩트리9 Reading Tree

성신 독후감상 수상작 모음집

인쇄일 | 2025년 2월 13일

발행일 | 2025년 2월 13일

발행처 |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인쇄처 | 씨샵카피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전화 | (02)920-7317

팩스 | (02)920-7424

홈페이지 | <https://lib.sungshin.ac.kr/>

비매품

리딩트리9 Reading Tree

성신 독후감상 수상작 모음집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발 간 사

성신 독후감상 수상작 모음집을 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신여자대학교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2024학년도 성신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을 담은 리딩트리9 발간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성신 독후감 공모전은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올해는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및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창의융합교양대학 100선 도서'를 대상 도서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도서를 깊이 읽고 사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수상작들은 단순한 독서 감상을 넘어 창의적 해석과 깊이 있는 사유의 결실입니다.

오늘날 AI와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사유와 소통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하며, 인문학적 탐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학습과 지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을 부탁드리며, 리딩트리9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5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김 연 식

목 차

발간사	3
-----	---

대 상

중국어문·문화학과 이다영	7
---------------	---

최우수상

한문교육과 이나영	11
심리학과 최희진	14

우 수 상

정치외교학과 원동희	17
한문교육과 이지은	21

장 려 상

정치외교학과 한지원	38
작곡과 김지현	42
경영학과 염수빈	46
영어영문학과 나영서	50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이누리	54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이해솔	58
법학부 황유빈	63
창의융합학부 김민아	67
영어영문학과 신가은	71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임은정	74
교육학과 김지수	78
사회교육과 김세빈	82
경영학부 전지영	86
지리학과 구은경	90
문화예술경영학과 윤채연	95
현대실용음악학과 이념경	99
간호학과 정해진	102
경영학과 원지원	108
국어국문학과 정미리	110
법학부 임회정	11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진세영	121
국어국문학과 박서현	125
컴퓨터공학과 이해빈	129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박시은	132
융합보안공학과 이재빈	136




대 상

시대를 넘어 모든 리더들에게 울림을 주는 한 권의 책,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중국어문·문화학과 이다영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참 많은 나라다. 나라의 크기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¹도 엇비슷하며 남북으로 길다랗게 생긴 모양이나 큰 섬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똑 닮았다. 2차대전이 종료되면서 독립된 국가(공화정)를 수립했으며, 무엇보다 반도국가이기에 시대에 따라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도하고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견뎌내기도 했으며 통일국가를 수립하기까지 많은 혼란을 겪은 역사의 흐름도 비슷하다.

이런 이탈리아는 15세기 들어 나폴리,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공화국들로 나뉘져 있었다. 이들은 평화협정을 맺고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끌기도 했지만 15세기 말 ~ 16세기 초에는 통일된 이탈리아를 만들기 위해 말 그대로 양육강식의 혼란기에 빠지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 피렌체의 정치가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정치학도들의 필독서이자 일반 지성인들의 교양서로 손꼽히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지역의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언젠가 중앙 정계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사람이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메디치 가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다.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의 선물²을 기억하고 크게 등용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실제 역사에서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군주국가라는 정치체제는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인식되며 현대 국제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군주론'도 역사가 또는 정치학자처럼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나 도움이 될 법하다. 하지만, 어떠한 인연으로든 이 책을 한번 읽게 되면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성공하는 군주의 지휘철학과 실천지침을 사례를 들어가며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라는 단어를 조직으로 군주라는 단어를 리더로 바꾸어 놓으면 이 시대의 모든 조직(국가, 기업 등 모든 조직사회)에 동일

1 면적은 이탈리아가 301,336km², 한국이 220,953km²로 이탈리아가 조금 더 크지만, 인구는 이탈리아가 약 6천만, 한국이 7천 5백만으로 한국이 조금 더 많다.

2 군주론 : 1532년 출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정치학의 고전. 이 책이 실제로 메디치가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며, 자신의 출세 때문에 선물하고자한 것인지 아니면 공화정 옹호자로서 군주제를 이끌던 메디치가의 몰락을 염원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찬반이 대립된다.

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치의 정수라 할 만하다. 더욱이 일반적인 철학서나 리더십 이론서들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깊은 심층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26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군주국의 종류(신생 군주국, 세습 군주국, 혼합 군주국)와 성공한 군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통치이념을 발휘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군주의 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역량을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군주가 참모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외교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군사력은 어떻게 건설하고 활용할 것인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탈리아 군주들의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이탈리아 해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저자의 주장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기에 이 시대 지성인들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성공하는 군주(이하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리더로서 조직을 화합단결 시키기에 적합한 성향, 조직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발전적으로 키워가기 위해 조직 스스로의 힘(역량)의 중요성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곱씹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군주는 과연 언제나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저자는 한 조직의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포르투나(fortuna, 운명)와 비르투(virtu, 역량)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군주론’의 전반을 꿰뚫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포르투나’는 운명, 행운, 기회 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외적요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요인이 잘 들어맞아야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반면 ‘비르투’는 리더 개인

의 능력, 노력을 통해 키운 역량으로 번역된다. 자연스런 계승이든 난세에 등장한 영웅이든 제도를 정비하고 참모진과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 절대적인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적인 ‘포르투나’와 개인의 ‘비르투’가 조화를 이룰 때 조직의 리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군주의 자리를 계승하거나 또는 새롭게 등극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과의 화합 구도와 리더 주변의 조력자들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을 이해시키고 통솔하기 위한 내외적 역량이 필수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크고 작은 사회조직들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시대를 넘어 진실에 가까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리더로서 조직을 화합단결 시키기에 적합한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리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잔인한 경우와 인자한 경우, 어떤 것이 조직 경영에 더 유익한가? 리더는 후하다는 평판을 얻는 경우와 인색하다는 평판을 얻는 경우, 어떤 것이 더 해로운가? 등의 선택기로서 저자는 명분을 쫓지않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답을 기술했다. 잔인하거나 인색하게 처신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솔직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의 다양한 리더십 이론과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된다. 물론 확실한 측근이 있다면, “군주는 미움을 받는 일은 타인에게 떠넘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라고 부언하며 조직 구성원의 미움을 받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인자하고 후하다는 평판으로 유유부단하고 경박하며 변덕이 심한 모습은 절대 피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는, 저자가 사용한 용어를 조금만 현대적으로 순화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현대의 리더들이 공익우선주의, 공공의 선 또는 공공의 정의 추구를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리더는 공공을 위해 누군가에게는 잔인하거나 인색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개개인의 고충을 잘 듣고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체의 화합단결을 위해(공공의 선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잔인하거나 인색하다는 평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조직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발전적으로 키워가기 위해 조직 스스로의 힘(역량)이 강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는 세월이 흘러 글로벌화 정도가 진화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현대의 조직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당연 군사력이었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력만으로 국가유지가 제한될 경우에는 인접국의 지원군 또는 전문 용병을 활용하여 국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군 또는 용병을 믿어서는 안되며 결국에는 자국군의 힘을 키워 자주국방을 달성해야함을 강조했다. 물론 외교전을 통해 대립하는 국가를 고립시키고 우호국과의 협력으로 평화를 유지시킬 수도 있으며, 전문 용병을 잘 활용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으나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현실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는 삼국통일 당시에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국토의 많은 부분을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역사에서도 증명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전쟁이 국가총력전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군사력 증강과 활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따져봐야만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국군의 능력에 더해서 군사동맹을 맺은 우호국들의 협력체계로 완전한 안보를 달성하고 있으며, 경제력의 규모로 따지면 군사력을 더 키워 100퍼센트 전쟁 억제력을 구비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자주국방력을 보유한 가운데 동맹국의 지원으로 효율적인 국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NATO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 걸음 나가서 민간의 기술까지 지원 받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안보의 다양한 형태와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며, 저자가 강조한 자국군을 근간으로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주도하에 있고 당신의 역량에 기초한 방어책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입니다”라는 저자의 말은 시대를 거슬러 변함없는 사실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마키아벨리가 비판받고 있는 주장에 대해 논의해

3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테슬라의 스타링크 체계 지원들 받아 군사적으로 활용했다.

보고자 한다. 그가 '군주는 여건에 따라서는 비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후대의 많은 논평가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 나는 '리더의 숙명'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주장을 해석하고 싶다. 리더는 모름지기 조직의 안전과 변형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며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한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군주국이나 오늘날의 민주국가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대 국가', '조직 대 조직'의 경쟁은 언제나 존재하고 리더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경쟁상대를 이겨야만 한다. 길으로는 명분있는 경쟁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거짓과 비도덕적인 전략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나만 공정하고 도덕적이라면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상대를 이겨내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기만과 기습'은 최고의 전략이며 손자병법에서는 속이는 방법에 대해 한 장(章)을 할애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의 리더는 선의를 가지고 규범과 도리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얼룩진 승리는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리더는 조직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투명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저자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변호해주고 싶다.

'군주론'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살아온 일생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가감 없이 기록했다는 점이다. 주장하는 바를 몇가지 주제로 나누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해도를 높여주거나 화려한 미사여구나 정곡을 찌르는 메타포가 뛰어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저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26개 장으로 나열하여 솔직담백하게 담아냈을 뿐이다. 하지만 꾸미지 않고 자신의 속내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것이 이 책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오로지 저자 본인과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수많은 고뇌 끝에 얻어진 결과이며, 최선의 정치적 리더십 바이블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날씨가 좋을 때 폭풍을 예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약점"이라고 말한 저자의 말처럼 힘들지만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리더들의 뼈를 때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읽기보다는 곁에 두고 천천히 음미한

다면 삶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조직)와 군주(리더)와 국민(구성원)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특히 아직 미래를 위해 다양한 꿈을 꾸고 있으며 생각의 확장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동료 대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최우수상

규정되지 않은 것이 함의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한문교유과 이나영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서양 윤리 수업에 관하여 학습했던 기본서였다. 기본서였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 중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하지만 나는 그 전까지 이름밖에 알지 못했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드디어 읽을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 책에 대한 내 나름의 정리와 감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 바람을 조심히 밝히며 독후감을 작성하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⁴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지적인 덕과 성격적 덕⁵이다. 지적인 덕은 말 그대로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지만, 성격적 덕은 습관⁶에 의해 형성된다. 나는 먼저 성격적 덕에 관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성격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한 덕을 나타낸다. 이러한 감정과 행위는 모자람/지나침/적당함⁷의 상태로 존재한다. 당연히 적당함의 상태를 완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위해서는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 물론 중용이 없는 감정과 행위도 존재하는데 질투나 살인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중용에 대해 알아 보기 전에 먼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것의 목적은 상위 목적을 지니고 그 위에 또 상위 목적이 존재한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상의 어떤 목적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잘 살고 잘 행위하는 것으로,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로부터 성취할 수 있는 최고 목적을 의미한다.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르곤(ergon)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에르곤은 일, 결과(물)를 뜻한다.⁸ 아르테(arete)는 덕(탁월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칠판의 지우개가 분필로 쓰인 칠판을 지우는 일을 하는 것은 에르곤이고 이때 칠판의 지우개가 이 행위를 잘 한다면 아르테가

4 탁월성을 의미함.

5 본성적으로 내재된 것은 아니지만 본성에 반하여 생길 순 없다.

6 책에서는 행위를 강조함. 실천(praxis)을 통해 습관이 되고 성격적 덕을 잘 발휘하는 것을 뜻함. 이러한 습관은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7 모자람과 지나침은 악덕이고 이 악덕의 중간 상태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함의 상태이다.

8 추가로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 특히 어떤 존재나 물체의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의미한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아르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성을 따르는 활동(ergon)을 잘하는 것이다. 이성을 따르는 활동을 하여 로고스(logos)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9지적인 덕과 성격적 덕을 얻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며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하고 덕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는 중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러한 품성상태(hexis)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품성상태는 습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덕, 자제력 있음, 자제력 없음, 악덕이 그것이다. 위에 살짝 언급했던 내용을 빌려 말해보자면 중용이란 악덕과 악덕 중간에 위치하는 적당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용의 상태인 덕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할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절제가 부족하다 혹은 절제가 너무하다'와 같은 말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은 중용에 이른 개별적인 덕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 덧붙여, 감정과 행위의 발현은 덕의 품성상태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되어준다. 만일 어떤 때 중용을 지키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덕의 품성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중용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된 듯하니, 이제부터는 중용의 다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중용에 대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덕)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이 말을 보면 중용은 쉽게 양극단의 중간에 표시하면 그만인 듯하다. 그러나

9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함.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중간이 항상 좋은 것인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30도의 무더운 여름날, 당신은 정해진 경로로 걷고 있었다. 그러나 타인이 그의 친구와 대화하느라 당신을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당신과 부딪혔다. 습하고 짊짊한 공기로 서로의 피부가 닿는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서 당신은 타인에게 분노해야 하는가? 노모와 함께 사는 당신은 오늘 노모의 생신을 위해 여러 가게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집에 들어가려던 참이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인기척, 살인마가 당신의 노모를 죽이고 창문으로 도주하는 중이었다. 당신은 이를 목격한다. 증용의 덕에 이른 당신은 중간으로 분노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두 상황에 대해 중간으로 분노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즉, 이는 우리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올바르게 증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함의한다. 쉽게 양극단의 중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잘함’을 맞추는 것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증용을 습관화하는 행위를 통해 덕을 함양하여 올바른 성품에서 도덕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상황과 맥락에 맞게 나오기를 원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덕 윤리’라고 부른다. 행위를 보고 행위가 보편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여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성품상태가 덕에 이른 인간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알맞게 감정과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 윤리’는 ‘행위 윤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 행위의 지침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칸트는 정언명령¹⁰을 이야기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좋은 성품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만 할 뿐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결정을 하는 게 어려웠다. 최선의 답을 내리려고 숙고한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내가 내린 결정은 완전히

10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내 맘에 들도록 완벽한 적이 없었다. 너무 올바른 것을 알고 싶었지만, 실천적 지혜¹¹로 증용을 파악하는 것이 내겐 너무 어려웠다.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었고 나는 그 선택마다 괴로워했으며 후회하는 것을 반복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답을 얻고자 했다. 나보다 배움이 많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했다. 물론 다르긴 했다. 나보다 더 높은 지적 능력으로서 더 많은 개별적인 덕을 지녔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의문이 들었다. 모든 상황과 맥락에서 감정과 행위가 증용에 맞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인간이란 존재하는 동물일까?, 하고.

그는 보편적인 행위의 지침을 규정하지 않으며 덕을 함양한 사람이 되길 원했다. 이는 굉장히 혹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진리를 찾을 법도 했다. 삶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나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완벽히 덕을 갖추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하여 죽을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덕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견비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여러 시행착오의 끝에 각각의 것들에 대해 증용의 무언가를 파악하고 또 옳은 감정과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 가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만이 결국 인간의 최고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증용은 너무나 유명하여 그 개념 정도는 대략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침을 설파하는 그가 왜 현실주의자인지 궁금했던 내 생각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정리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행복은 거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¹²다른 말로 '철학적 지혜에 따른 관조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

11 지적인 덕 안에 포함됨.

12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2페이지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다른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 즉 지성의 활동만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라 규정한다. 덧붙여, 행복의 기준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고 행복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닌,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즐거움이다. 이는 요즘 시대적 맥락에 따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파민 중독’ 세대라고 부를 만큼 많은 자극적 매체에 익숙해져 있다. 현대 사람들은 더 강한 즐거움, 지나친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 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즐거움은 나쁜 즐거움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나쁜 즐거움이고 그래서 당신들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니가 뉘네 내 행복을 정의해?”라는 반응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의미가 옳다고 느껴지는지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견해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것은 비단 아리스토텔레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공동체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로소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세상이 그리고 내가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상가들에 관한 철학 도서를 읽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렇듯 여러 논의를 전개하는 철학적 견해가 담긴 인문학의 존재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찰과 경험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인문학을 통해 이러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곱씹어보는 것 자체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과정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우수상

『피로사회』와 현대사회 비교 분석 연구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고

심리학과 최희진



개요

1. 서론
2. 성과사회와 현대사회
 - 2.1 성과사회의 등장
 - 2.2 성과사회와 현대사회 비교
3. 과잉 긍정성과 현대사회
 - 3.1 성과사회의 과잉긍정성
 - 3.2 과잉 긍정성 시대와 현대사회 비교
4. 성과사회와 현대사회의 우울증
 - 4.1 성과사회의 우울증
 - 4.2 현대사회의 우울증
5. 분석 결과
6. 결론

1. 서론

최근 화두 되고 있는 것은 현대인의 만성피로이다. 현대사회에서 피로가 고질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피로사회』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¹³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피로와 더불어 현대인의 주된 심리적 문제(소진 증후군,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답한다.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를 서양 근대 철학과 인문학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떠오르게 한 책이 바로 『피로사회』이다. 이 책은 현대인의 정신 질환의 배후에 사회의 압력이 놓여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념을 내세우고 거장 철학자, 사상가들의 논리를 비판하며 이 시대의 본질을 통찰한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 철학계와 문화계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

13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p.11.

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근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 시대가 '피로사회'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자가 새롭게 제시한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주장이 실제 우리 사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의 주장과 실제 현대사회를 비교하며 분석할 것이다.

2. 성과사회와 현대사회

2.1 성과사회의 등장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로써 규율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가 지배적인 조동사가 되며 '노 NO'가 지배적인 사회로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부정성에서 점차 벗어나고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지배적인 조동사가 되었다.¹⁵

이와 연관되는 현대인의 특징을 "성과 주체"라고 부른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 중심의 성과사회는 "무한한 자유의 무게로 짓눌러" 성과 주체를 소진하게 하다가 마침내 우울증과 낙오자를 낳는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화하면서 타자에 의한 강제가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제로 대체되고, 성과 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에 몸을 맡긴다.¹⁶ 그리하여 그것은 과도한 노동과 성과로 이어지며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성과 주체는 "스스로" 자본의 피해자

14 강수돌, 「성과사회, 자기착취, 그리고 피로사회」, 『뉴 래디컬 리뷰』, 2012. 여름 제52호, p.276.

15 한병철, 앞의 책, p.24.

16 한병철, 앞의 책, pp.28~29.

이면서도 가해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불행히도 극단적 피로와 탈진, 우울, 소진, 죽음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¹⁷

2.2 성과사회와 현대사회 비교

저자가 제시한 ‘성과사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즉, 누구나 노력한다면 ‘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가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회, 경제,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삶은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는 주장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이다. 이는 곧 성공하지 못한 삶은 ‘잘못 경영된 삶’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¹⁸ 그 결과 잘못의 화살이 책임의 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지고 그렇게 개인은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개인은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며 성과에 집착하고 자신을 착취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탈진하고 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저자가 제시한 ‘성과사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3. 과잉긍정성과 현대사회

3.1 성과사회의 과잉긍정성¹⁹

저자는 과거가 면역학적 시대라고 주장한다. 안과 밖,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시대라는 것이다. 면역학적 행동의 본질은 공격과 방어다. 아무런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타자도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즉, 면역 방어의 대상은 타자성 그 자체였다.

17 한병철, 앞의 책, p.11.

18 김현미외 5명, 『친밀한 적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p.143.

19 한병철, 앞의 책, pp.12~22.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면역학적인 조직과 방어의 도식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도 속으로 점차 빠져들어 가고 있다. 현재, 낯선 것은 이국적인 것으로 변질되며, 여행하는 관광객의 향유 대상이 된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이질성과 타자성이 소멸하는 것이 성과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언급된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성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21세기의 신경성 질환들 역시 부정성(저항, 거부, 항의)보다는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세계의 긍정화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고 했다. 새로운 폭력은 면역학적 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내재한다, 바로 그러한 내재적 성격으로 인해 긍정성의 폭력은 면역 저항을 유발하지 않고 삶의 생동성이 고갈되는 ‘심리적 경색’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3.2 과잉 긍정성 시대와 현대사회 비교

저자의 논리를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럴듯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자는 과잉생산, 과잉 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피로와 소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할수록, 즉 과잉될수록 공허해진다는 역설, 이러한 현실을 저자의 피로사회가 예리하게 짚어주고 있는 셈이다.²⁰

하지만 “후기 근대적 성과주체는 부인할 일이 거의 없다.”²¹라며 성과주체가 과거와 달리 부정성이 많지 않고 긍정성만 과잉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 저자의 말처럼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외부의 타자에 대한 부정성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부정성은 사라지지 않고 유사한 타자 혹은 동질성 내부로 흘러들어갔다.²² 동질성이

20 강수돌, 「성과사회, 자기착취, 그리고 피로사회」, 『뉴 래디컬 리뷰』, 2012. 여름 제52호, p.277.

21 한병철, 앞의 책, p.83.

22 김진석, 「성과에 매달리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성과에 매달리기」, 『황해문화』, 2012. 제 75호, p.436.

늘어나는 내부 공간에 부정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성과 주체는 자신 바로 옆의 타자의 성과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성과를 설정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다.

또한,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하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타인을 배제하려는 부정성을 수반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부정성이 결핍되었다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성과사회와 현대사회의 우울증

4.1 성과사회의 우울증

저자는 '우울 사회'라는 부분을 따로 추가했을 정도로 우울증이 성과 주체의 핵심 질병이라고 소개한다. 현대인의 우울증은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의 끝없는 반복에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발발하게 된다고 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식은 파과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²³

이처럼 탈진과 우울 상태에 빠진 성과 주체는 말하자면 자신에 의해 소모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성과 주체의 우울증이 타자에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고 자기 착취의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²⁴

4.2 현대사회의 우울증

저자가 설명한 우울증의 원인엔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과연 저자의 설명처럼 사회에서 타자에서 오는 폭력이 사라졌을까? 타자에서 오는 폭력은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다. 현대사회에서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자신이 아닌 타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성과를 위해 자기를 착취

23한병철, 앞의 책, p.28.

24한병철, 앞의 책, p.104.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성과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 기구에서 자유롭다”²⁵라는 저자의 주장에도 반박할 수 있다. 과거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착취했지만 지금은 기업이 개인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속성인 ‘감정’도 노동과정 속에서 교환가치로 추상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한다. 감정 노동은 기업이 만든 특정한 감정 규칙에 따라 자신의 내적 감정을 조절, 관리하는 작업의 수행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상당수는 ‘가면화된 감정’, 허위의 감정 표출로 인해 많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스트레스는 물론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소진(Burnout)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²⁶

이처럼 사회와 기업은 이윤을 위해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며 노동자를 압박한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현대인의 우울증이 자기 착취뿐만 아니라 타자 착취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자 착취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 발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분석 결과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피로사회』에서 제시한 일부 주장이 현대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현대사회가 과거와 달리 부정성이 결핍되었다거나 타자 착취와 외적인 지배 기구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 현대사회엔 여전히 부정성이 퍼져있고, 타자 착취와 외적인 지배 기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저자가 과거와 현대사회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5한병철, 앞의 책, P.28.

26김왕배외 2명.,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 제46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12, p.123.

6. 결론

저자는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성과사회는 과거와 달리 부정성에서 점차 벗어나고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지배적인 조동사가 된 사회를 의미한다. 성과사회는 부정성이 결핍되고 긍정성이 과잉된 사회로 이러한 세계의 긍정화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았다. 이러한 폭력성은 과잉 생산, 과잉 커뮤니케이션, 과잉 가동으로 나타났다. 성과사회에서 타자 착취와 외적인 지배 기구는 사라졌기 때문에 성과 주체는 자신을 착취하며 스스로 자본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된다. 결국 현대인은 성과를 향한 끝없는 요구에 지쳐 탈진과 우울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사회는 부정성이 결핍되었다고 하거나 타자 착취와 외적인 지배 기구가 사라졌다는 일부 주장은 실제 현대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 현대사회엔 부정성이 퍼져있고, 타자 착취와 외적인 지배 기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저자가 현대사회가 과거와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분법적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자의 주장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국인이란 자기를 착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것이다. 그만큼 피로사회라는 문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미외 5명, 『친밀한 적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강수돌, 「성과사회, 자기착취, 그리고 피로사회」, 『뉴 레디컬 리뷰』, 2012. 여름 제52호.

김진석, 「성과에 매달리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성과에 매달리기」, 『황해문화』, 2012. 제75호.

김왕배외 2명,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 제46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12.




우수상

우리의 신념, 우리의 언어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읽고

정치외교학과 원동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Don't think of elephant*

정치 서적에 관심이 없다고 한들, 한 번이라도 인문 사회 서적 판매대에 갔었더라면 들어봤을 제목이다. 제목부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이 책은 2004년 미국 민주당의 처참한 선거 패배에 반성하고자 공화당을 이길 전략 집을 목표로 쓰였다. 2014년에는 10주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현재 2024년, 20년의 세월을 담게 되었다. 정치학도로서, 진보주의자의 관점으로 전 세계 선거 전략에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던 대작의 성공 원인과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인지과학자의 “프레임”

조지 레이코프(이하 조지)는 인지과학자로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사고를 연구한다. 특히나 여기서 주의해 봐야 할 것은 ‘무의식’이다. 이는 우리의 뇌의 98%가 의식 수준 밑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²⁷ 가장 심연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무의식을 알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로, 우리의 목적, 계획, 행동 방식, 결과에 따른 반응을 결정한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은 언어로서 프레임을 인식한다. 특정 단어를 통해 연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프레임으로 구축되어 활성화된다. 특히, 어떤 프레임을 부정할 때, 그 프레임은 더욱 활성화된다. 이 책의 제목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코끼리”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에 “프레임”을 대입해 보았을 때, 각 정당은 같은 문제를 두고 프레임 전쟁을 한다. 세금 인상 문제가 있을 때, 보수주의자들은 “세금 폭탄”의 프레임을 씌워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진보주의자의 입장에서 세금이란,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일종의 회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해 세금 인상은 그만큼 정부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증가함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 가

27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p.9

지고 온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착안해, “세금 인상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라고 한들, 국민에게는 “세금 인상 = 세금 폭탄”의 프레임이 굳어져 프레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조지는 그러하여 그들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언어를 써서 우리의 신념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정치는 도덕적이다

우리는 흔히 나와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보며 비하, 폄하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당, 혹은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는 도덕의 차이가 서로를 구별하며, 서로 다른 도덕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수가 중시하는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국가, 진보가 중시하는 ‘자상한 부모’로서의 국가를 모두 이해하며 경히 여기지 않아야 상대를 이길 전략을 고안해 낼 수 있다. 보수는 애덤스미스의 자연법 사상에 의거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도덕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 보수의 평안well-being은 부를 뜻하며, 그 안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에 반해 진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며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중시한다. 보호를 중심으로 진보는 자신들의 가치를 확장시킨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예시로 보수와 진보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수는 이를 낭비성 지출이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비도덕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그에 반해 진보는 이 또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멀리 보아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응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도에 있어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큰 노력을 가하고 있다. 싱크탱크와 같은 연구소 설립, 대학의 교수진, 책 출판, 우호 지식인 지원, 미디어 노출과 같이 자신들을 하나로 만들 통일된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

하나 진보 측에서 가져오는 복지 정책,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들에 관해 ‘미끄러운 비탈길 계획(Slippery slope)’을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주며 결국에 진보가 바라는 정책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사회에 혼란이 오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 장기적인 사고를 가져 자신들의 가치인 보존과 방어, 사적 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에 반해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내미는 질문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쟁점적 사고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단기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 정치란, 단발성이 아니기에 장기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논쟁을 하여, 우리에게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개정판이 나온 지 10년, 초판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급변하는 정치판도에서 지금 우리에게 책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아직까지 보수는 굳건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뿐더러,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자본으로 축적해 두었던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더욱 보수의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프랑스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주의자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 모든 생각이 중요하지만,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의존하여야 지속되기에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연한 진보의 성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투자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선거용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보수의 자금줄을 흔들 수 있는 상속세, 법인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원의 방도가 필요하다. 진보주의자 내의 단합도 필요하다. 물론, 자유와 다양성을 가치로 내세우는 진보의 특성만큼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의 판도를 움직일 수 없이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상은 망상으로 남게 될 뿐이다. 확실한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하여, 삶과 다른 영역에서 모순된 도덕 체제를 가진 사람들, 즉, 이중개념주

의를 가진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굳어져 있는 부동층을 움직이기는 어렵기에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여²⁸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투표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의 가치는 기본적인 진보의 전망에서 나옴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세우는 원칙들은 진보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움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밀고 나갈 정책 방향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합치되어 진행될 때에야 비로서 보수에 대한 진보의 완전한 승리를 거머질 수 있을 것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들의 언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무의식에 의해 결정되기에, 이를 만드는 언어의 중요성과 언어로 인해 만들어지는 “프레임”의 중요성을 우리는 정치와 정치가 바꾸는 우리의 삶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화하여 사건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기성 언론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쉽게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지나 치고 마는 작은 낱말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세상과 우리 공동체 더 좋은 것으로 진보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며,
우리의 이해는 세계를 반영한다.”*

p.81

28 이중개념주의를 갖고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수상

조선 사람들과 나 사이, 낯선 친숙함

전경목의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를 읽고

한문교육과 이지은



어려서부터 유교사상을 몸에 익히고 배우며-"拱手!" 소리와 함께 두 손을 모아 웃어른을 보면 허리를 굽히는 유치원 인사법이라거나-, 우리만의 고유문자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역사와 학문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경험을 중시하는 어머니와 함께, 문자와 전통문화를 탐구하며 고찰해나가는 한문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비교적 다른 이들보다 '박물관'이라는 장소에 방문할 기회도 이유도 많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을 다니며 그곳에서 웃어른과 친구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바로 하원을 하며 마주하는 친구들의 가족, 저의 가족 친지들께 활용하여 익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교유치원이었던 특성 따라 이따금씩 원장 스님께서 원생들은 물론 부모님들을 모아 인성교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들에 고유문자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가정배경과 현재 전공이 합쳐져 저는 자연스레 박물관 속 유리관에 고고하고도 웅장히 조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각종 고문서들에 거북한 거리낌보다는 되려 그것들을 술술 읽어나가고 싶단 열망이 솟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가지기 전, 복잡한 한자로 적혀져 있다거나 한글 역시 개개인의 필적에 따라서는 도저히 읽을 수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아쉬운 마음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소망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같은 대한민국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까지 써내렸지요. 바로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 케케묵은 고문서 한 장으로 추적하는 조선의 일상사". 그저 문자를 읽어가는 것뿐 아니라 문서 속 의문점들을 찾아 그 속에 더 파고드는 작업을 하는 작가 전경목.

대학교 도서관의 어찌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역사 관련 도서자료실에 꽂혀있던 이 책은 의아하게도 저의 기호에 딱 알맞았습니다. 본 독후감의 제목과 같이, 책의 제목만 보아서는 이젠 우리와 수 세기 차이 나는 조선 사람들의 일상을 그저 탐구하여 담았겠구나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낯선 친숙함', 그들 역시 그저 이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면,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리도 매우 다르면서도 매우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좌우명따라, 모두에게 '오늘'은 처음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또, 무엇이 펼쳐질지는 모르고 이는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하루하루를 잊지 않기 위해 또한 나를 돌아보고 돌보기 위해 기록합니다. 작가 전경목이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먼 조선시대에도 저와 같은 기록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작가는 목차부터 여러 갈래-뒤집어 보기, 용어를 통해 보기, 의심해 보기, 양면 또는 다면 보기-로 분류하여 그가 경험한 고문서들을 흥미롭게 맛 좋은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저 고문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를 현재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어 약간의 보충 설명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 본인이 책의 서문에 적었듯이, '한 편의 추리소설'과 같습니다. 고문서 해석의 영역은 작가 전경목이 일궈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문의 싹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착안한다는 작가의 말처럼, 작가는 특정 고문서가 작성된 시기가 불분명할 때, 가장 최근의 날짜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짐작한다던가,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 혹은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허점을 찾아내어 결국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세워냅니다. 이러한 추리 속에는 작가 전경목이 오랜 시간 탐구해온 학문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분석력과 작가만의 그 시절 당사자를 헤아리는 감성적 면모 두 가지가 전부 보여 책을 읽는 내내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작가가 여러 가지의 고문서를 해석하고 소화해가면서 그 속의 자신과 동일시되는 인물들을 대면하는 점 역시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지만 세상에 그런 위인들만 있던가? 어제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며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고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맨 얼굴이 보인다. 그들은 근엄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대쪽 같은 선비가 아니라, 우리처럼 웃고 울고 화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웃이다. 이들의 은밀한 삶을 엿보는 재미는 고문서 읽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 부분이었는데, 항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양란 혹은 봉당정치 등의 거대한 역사에 집중했던 조선사였기에 책

의 제목에서 언급한 일상사의 개념은 그야말로 미시사였으며 그 집중과 관심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때문에 그에 가려진 조선의 일상을 하나하나 추리하듯 복원해낸 이 책에서는 앞서서 인용한 책의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듯, 근엄하고 대쪽 같은 삶을 사는 사대부보단 지금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던 이혼, 노름, 비리와 같은 비중 적은 그야말로 일상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 전경목은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역사적 통설들을 반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희미하게 짐작하던 일들을 실제처럼 느끼지게 구체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전혀 다른 시대와 상황이라는 낯설과 작가 역시 동일시하는 인물들의 친숙함이 동시에 읽히며 역설적인 '낯선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조선시대 여성의 재가에 대한 인식과 제한이 부정적이고 심하다고 여겨온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듯, 직접 글을 쓰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여 이혼을 행한 남편 최덕현의 수기를 뜯어내어 서술하였습니다. 아무리 근엄하고 엄격한 유교사회이더라도 사람 간의 일엔 뭐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토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사회에서도 이혼은 불가피한 일로 그 경우가 다수였을 것입니다. 한국사 공부를 하며 배워 희미하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여성의 재가는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조선 후기엔 엄격히 금기시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우리에게 작가 전경목은 탐정에 버금가는 추리력으로 양반 부녀자의 경우는 그러했으나 책에 실린 평민 최덕현의 부인과 같은 평민과 천민의 재가와 성생활은 초기와 동일하게 따로 제재 없이 자유로웠다고 일러줍니다.

작가는 마치 출처 모를 조선에 대한 편견에 쌓인 우리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를 대표로 변호하는 변호사 같기도 하였습니다. 대강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었을 것이란 상상 속 조선의 아버지가 틀렸고 허구한 날에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평범하고 친숙한 우리네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한 번 맺어진 혼인관계를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상상 저편의 부부만 있지 않고 TV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찍는 듯, 불륜과 재혼이 되풀이되는 결

혼생활이 나타나는 고문서를 풀이해 준다거나, '공명첩을 구입하면 정말 양반이 되었을까'란 서두를 가지고 조선 후기 부유한 평민들이 돈으로 양반의 지위를 샀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고, 되려 국가에서 공명첩을 강매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이렇듯 조선의 일상사에 무심하던 이들도 절로 흥미를 갖고 집중하게 될 흥미로운 해명의 서술들이 책을 읽어나가며 작가를 단순 서술자가 아닌 유능하고 조리 있는 탐정이자 변호사로 만들어내어 주었습니다.

작가 전경목은 케케묵은 고문서들은 대부분 초서로 쓰여 있어 일반인들은 고문서를 쉽게 판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독후감을 끝마치며, 바로 이 점이 제가 이 책을 선정하여 읽어가고 기록하는 이유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독후감의 초두에서 서술한 성장배경들에 더불어, 현재 본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에 재학하며 한문 범벅의 문장들을 수시로 마주하고, 매년 전국의 박물관과 서원 등을 답사하면서 타고난 과거 기록물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범대학 필수 수업시연과 교육봉사의 경험을 겪으며 자체의 수업 기자재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원체 다량의 정보 정리와 여러 번의 확인을 선호하여 습관처럼 행해왔던 저이고, 대학 진학 후엔 관심 있던 디자인의 영역에 여러 번 시도를 해왔기에 만들어낸 교재와 그 과정에서 기분 좋은 수고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문을 딱딱하고 옛것이라 여기며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요즈음의 시대에 케케묵은 고문서를 해석하고 의심하여 이렇게 흥미롭게 재탄생시킨 작가 전경목과 같이, 쉽게 접하고 더 나아가선 즐기게 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발견한 본 도서가 미래의 제 모습에 한 알의 영양제처럼 작지만 든든한 존재이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장려상

오른손잡이들의 국가에서 왼손잡이의 세상을 상상하기

김초엽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고

정치외교학과 한지원



1. 우리의 '몸'에 관한 사고실험

지금부터 한 가지 사고실험을 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옛날이야기 속 주인공에 나를 대입해서 그 삶을 상상해보는 거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어릴 적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 속 주인공이 되어 소인들이, 혹은 거인들이 사는 나라에 홀로 뚝 떨어졌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나의 모습에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고 급기야 밧줄로 내 몸을 묶은 채 나를 둘러싸고 처분을 의논한다. 결백을 주장해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방인인 나는 그 나라에 적응하기 어렵다. 소인국의 건물은 너무 작아서 아예 몸을 집어넣지 못할 수도 있고, 거인국의 건물은 너무 커서 문 하나의 무게도 이기지 못하거나 손잡이까지 키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겨우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그 건물이 고층 건물이고 내 키만 한 계단만이 위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그 계단을 한 칸이라도 제대로 오를 수 있을까?

소인들의 나라에서 소인을 정상으로, 거인들의 나라에서 거인을 정상으로 규정한다면 두 나라에 떨어진 '나'의 몸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바탕의 일시적 체류로 끝나는 모험기가 아니라면, 이런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회에서 나의 몸은 다른 몸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을 다시 현실 세계의 단어들 사이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일종의 장애(disabled)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타인의 입장에 나를 대입해보는 상상력, 환경을 달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몸'이 되어보는 사고실험은 우리가 평소 감각하고 인지하던 기존의 세계보다 한층 확장된 풍경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여기서 개개인의 몸이 가진 다양성과 그것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생명체 각각의 고유한 환경을 뜻하는 '움벨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글의 전제가 된 책『사이보그가 되다』에서는 저자가 기술과 결합한 장애인의 신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개념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련의 현상을 장애라고 정의하기 위해서 장애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어쩌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

이 변화하면서 장애의 범위나 정의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장애라는 개념이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포괄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2. 장애 개념의 재정의: 왼손잡이의 목소리 듣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걸리버가 된 ‘나’의 몸을 상상하기 전까지 장애란 비장애인인 내가 겪거나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특수한 상태였다.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내 몸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사용된 ‘손상’, ‘기능상실’, ‘장기간’, ‘일상생활’, ‘사회생활’, ‘상당한 제약’과 같은 표현 하나 하나가 장애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표현의 선택은 단순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애 개념을 정의한 결과가 아니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장애계와 정부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였다”²⁹

“한편으로는 ‘상당한 제약’과 같이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이 이러한 표현이 갖는 파급효과를 깨닫지 못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포함된 표현도 있었다.”³⁰

장애 개념을 정의하는 모델은 크게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로 나뉘는데,³¹ 해당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일상과 사회

29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 2007, p.5-53와 이승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사회보장연구』 23(3), 2007, p.227-250 참조. (오욱찬, 「차별금지 대상으로서의 장애 개념의 포괄성: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53호, 2016, 444p에서 재인용)

30 남찬섭, 2007, 위의 글 (오욱찬, 2016, 위의 글에서 재인용).

활동 제약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의료적 모델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한편 나는 언젠가 장애 권리와 관련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해당 강연에서는 장애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여 개인이 무언가 할 수 있거나 없는 것은 몸의 손상 여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몸이 사회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도록 다시금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장애 모델 중 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말해 사회가 그 사람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정상의 범주에서 배제했을 때 그 사람은 장애인인 된다는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Q&A에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나의 지인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인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질환은 장애로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행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범주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나는 왼손잡이인데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는 부정확한 존재로 여겨져서, 오른손잡이로 교정을 강요당하고 손에 맞지 않는 도구를 억지로 사용하면서 물집이 잡히고 손이 다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것도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처럼 장애의 개념은 정의하기에 따라 매우 넓어질 수 있는 개념이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도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³²

어쩌면 장애는 특수한 몸을 타고 난 개인이 필연적으로 겪는 불편함이 아니라, 세상이 구획된 방식과 틀에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일치나 불화가 아닐까. 그 틀은 어떻게 생긴 걸까. 모든 사람이 그 틀에 딱 맞게 몸을 구겨 넣고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처럼 거기 있을 수 있을까. 이처럼 내가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얻은 몸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제되었을 때, 누구나 차

31 크리스티안센 외, 『철학, 장애를 논하다』, 김도현 역, 그린비, 2020, 36-67p의 장애 모델에 관한 설명을 참조.

32 오육찬, 2016, 위의 글 참조.

별이나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몸이 다 다른데, 그 제각각인 몸들 중 정상성이라는 좁고 딱딱한 틀에 알맞게 들어가거나 그 틀 너머로 통과할 수 있는 몸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처럼 궁극적으로 장애라는 개념을 보다 넓혀 생각하다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엇도 장애(disabled)가 아니게 되는, 즉 정상-비정상의 경계 자체가 희미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경도되어 의료적 모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도 좋지 못한 접근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를 단순히 사회적 차별로 정의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장애라는 개념 아래 보장되던 것들-사회 제도나 법률 등-또한 차별이라는 모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 장애는 어찌됐든 몸의 의료적 손상이 선행된 후에야 구조적 차별이 뒤따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를 선불리 '사회적 차별 아래서 만들어지는' 허구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넓혀버렸을 때 장애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보그가 되다』의 저자인 김초엽 또한 이 책 속에서 보편화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요구를 탈중심화시키는 딜레마³³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장애 개념을 요청해야 할 텐데, 이렇듯 복잡하게 이론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장애 개념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재정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 쪽으로 미뤄 두고, 책 속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자.

3. 제언: 장애 정체성을 새로이 감각하려는 시도

저자는 「크립 테크노사이언스」라는 개념을 요청하여 장애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험, 당사자성이 반영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33 김초엽·김원영, 앞의 책, 203p 참조.

“크립 테크노사이언스 선언”은 다시 말해 ‘불구의 기술과학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햅라이와 프리츠는 기존의 주류 장애 기술이 주로 비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었다고 지적한다. 주류 장애 기술에서 장애인은 지식 생산자가 아니라 단지 사용자 혹은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비장애인 전문가들이 생산한 지식의 결과물을 장애인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³⁴

이처럼 장애인들을 소비 타겟으로 삼는 주류 장애 기술마저 장애인들을 대상화한다면 그 밖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저자는 기술이라는 분야를 빌려 장애인권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키워드를 던져 준다. 바로 ‘주체성’의 문제이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라는 개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기술 등 사회 각 분야에도 그 고민의 결과가 적용 및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장애 개념을 넓혀 생각하고, 나를 사회적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 밀어 넣어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움벨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과 다른 지각 세계를 가진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 *움벨트*umwelt라는 말을 쓴다.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체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세계, 그 개체가 살아온 또한 지각하는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외계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행성 지구에는 다른 감각을 가진 생명체들이 아주 많다. (중략) *움벨트*는 각각의 종에 따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 안에서도 개체마다 다르다.”³⁵

다른 존재의 몸을 내 것처럼 상상해보는 일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을 일으키고,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긍정하는 일이 된다. 이 *움벨트*라는 고유한 감각을 내세우고 그 감각으

34 김초엽·김원영, 앞의 책, 186p.

35 김초엽·김원영, 앞의 책, 255-256p 참조.

로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 비단 사이보그-장애 공동체-만의 일이 아니다. 제각각의 몸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일이다. 서로 다른 움벨트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언젠가 우리의 움벨트가 겹쳐질 수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기술과 신체가 결합된 사이보그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다. 타인을 충분히 다 이해했다는 오만으로 또다시 우리를 범할 수도 있다. 보편화의 딜레마를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고, 타인의 삶을 경험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실천적 방법론이나 단계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렇듯 아예 다른 존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갈리버의 비유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긴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같은 세계 속에서 다른 움벨트를 가진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으로서 서로를 감각하자는 선언 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장애 개념은 비로소 진화할 수 있고, 장애 담론이 건설적인 논의의 장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책의 제목처럼 활자를 읽는 동안 잠시나마 사이보그가 되어보는 체험을 했다. 그러나 책은 궁극적으로 그 체험을 활자 바깥의 삶으로 끌고 나가라고 종용한다. 책을 덮은 우리는 다만 연장되고 확장된 체험의 기로를 걸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기로 속에서 매순간 선택을 거듭하며 다른 나로 살아갈 동력을 얻는다. 타인을 마주할 방법을 배운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왼손을 내밀면 오른손을 맞잡아오는 '우리'가 된다.




장려상

내 안에 피어난 나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작곡과 김지현



"시간은 가혹할 만큼 공정한 물결이어서, 인내로만 단단히 뭉쳐진 그녀의 삶도 함께 떠밀고 하류로 나아갔다." 고작 한 줄 밖에 안 되는 이 문장이 기나긴 표류 같았던 '채식주의자'의 모든 것을 관통한다고 생각한다.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한강의 연작소설로 어느 날 꿈으로 인해 채식주의자가 된 여성인 주인공 '영혜'가 겪는 사회적 갈등과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추악함, 고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과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해소해 줄 방안으로 책과 영화를 접하게 되었다. 요즘 ott가 워낙 발달했다 보니 각국의 여러 영화들을 관람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더 넓히고 나의 가치관을 점점 정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책은 웬지 모르게 매번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거리를 무의식적으로 만들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다 보니 영화와 책은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진짜 책을 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영화, 드라마의 각본부터 시작하여 여러 소설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모국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세계라는 신비로움 때문에 한국 작품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중 내가 중학생 때 가장 화제였던 책인『채식주의자』가 떠올랐다. 내가 기억하는 『채식주의자』는 당시 어떤 유명한 상을 받았고, 베스트셀러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영화를 볼 때도 감독의 대표작부터 보기보다는 데뷔작부터 순서대로 보며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감독 개인의 성장을 파악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지라, 일단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 채식주의자 외에 어떤 책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렇게 데뷔작인 『여수의 사랑』부터 『내 여자의 열매』까지 읽고 나니 담담하면서도 힘이 있는 문체와 나의 신경을 조금씩 잡아먹는 본질적인 스토리에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채식주의자』를 더욱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채식주의자』를 읽고 난 후 나는 이 달콤하고도 고통스러운 글자 하나하나에 함락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살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스토리들이 이어졌고 이런 인물이 절대 나와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인물들에 점점 이입하였다. 다 읽고 난 후에는 '채식주의자 후유증'에 걸려 "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다니곤 했다. 이 후유증의 증상은 찢찢하고 끈적한, 좋지 않은 느낌이 대부분

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 불쾌한 느낌은 내 안에 새로운 뿌리가 돌아나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주인공 '영혜'처럼. 나의 독서생활의 서문을 한강의 작품들과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정했다는 것에 후회는 없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나의 뇌가 『채식주의자』에 나온 단어와 문장 하나 하나에 절여져서 다른 글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책 『채식주의자』의 1부 「채식주의자」는 영혜 남편인 '나'의 시선으로 서술된다. 평범하고 평범한 여성이었던 영혜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만 말하며 육식을 멀리하기 시작한다. 영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처가 쪽 식구들과 함께 영혜를 말리고자 한다. 영혜의 언니 인혜의 집들이에서 가족들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영혜는 육식을 거부하고, 장인이 강제로 영혜를 포박한 후 영혜의 입에 탕수육을 넣으려 하자, 영혜는 그 자리에서 과도를 들어 손목을 긋는다. 영혜가 병원에 입원한 후 '나'가 병실에서 잠깐 잠든 사이 영혜가 사라지자 '나'는 영혜를 찾으러 급히 뛰어나간다. 분수에 가까워졌을 때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보니 영혜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낸 채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입술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움켜쥔 오른손에는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작은 동박새 한 마리가 있었다. 1부 「채식주의자」를 읽으며 수많은 의문이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영혜가 계속해서 끔찍한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까지 보여 가며 영혜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 꿈 하나 때문일까. 그녀가 가슴에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답답한 덩어리는 무엇일까. 그 덩어리들은 정말 목숨들이 걸려있는 것일까. 이 의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혜가 꾸는 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꼼꼼히 읽었다. “내가 뭔가의 뒤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손잡이가 없는 문 뒤에 갇힌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걸 이제야 갑자기 알게 된 걸까.” 읽다 보니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이 영혜가 꾸는 꿈의 기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아니 계속 있었던 곳을 내 안에 가두어 본인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것이다. 영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표면은 평면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뿌리들이 영켜 있다. 하지만 영혜는 자기 안에 뿌리들이 영켜 자라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인내하고 남편과 가족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혼자서 계속 삼켜왔던 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덩어리로 영혜의 가슴에 자리 잡아 영혜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영혜의 꿈으로 인해 냄새 나고 더러운 존재로 느끼고 있는 '고기'가 영혜가 계속 인내해왔던 '인간'을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참 화가 많다는 생각을 한다. '화' 라는 것이 결코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또 가져야만 하는 감정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분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나라에는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 '눈치' 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민족인지라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눈치가 하나의 질서가 될 수도 있지만 눈치로 인한 인내가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 더욱 좋지 못한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와 뉴스들을 보며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영혜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남의 눈치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감내하는 우리나라의 인간상이지 않을까. 또한 영혜의 가족들을 보았을 때 '채식주의자'라는 틀에 갇혀 영혜를 압박하는 모습도 남이 바라보는 채식주의자인 나의 아내, 딸, 동생으로서 눈치가 보였기 때문 아닐까. 눈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대로를 본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혜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본 사람이 2부에 등장한다.

2부 「몽고반점」은 인혜의 남편이자 영혜의 형부인 비디오아티스트 '나'의 시선으로 서술된다. 아내 인혜에게서 영혜의 영덩이에 아직 몽고반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영혜의 몸을 탐하게 된다. 영혜의 몽고반점을 생각하며 그린 스케치의 주인공은 처제와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며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그러다 '나'는 아내의 부탁을 핑계로 영혜를 찾아가 자신의 작품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영혜는 이를 수락하고 영혜의 몸에 꽃을 그려 촬영을 진행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몸에도 꽃을 그려 영혜와 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한다. 다음 날 영혜의 집에 방문한 아내 인혜가 별거벗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구급대원을 부른다. 『채식주의자』의 3부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고르자면 바로 이 「몽고반점」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추악하고 끔찍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나의 갈등을 가장 잘 해소해준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들었던 질문은 형부인 ‘나’가 만들고자 하는 비디오 작품이 과연 진정한 예술인가? 였다. 다양한 영화와 음악 등 예술 세계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심오하고 깊은 세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가 하고자 하는 예술은 그저 포르노처럼 보였다. 그리고 영혜에게 행하는 행위가 그저 성폭행처럼 보였다. 본인도 그렇게 보일 것을 알기에 영혜에게 모델을 부탁하는 것을 망설였을 것이고 처음부터 본인과 함께 촬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고 표현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형부였다. 영혜의 몸에 꽃을 그린 후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아 하는 영혜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불행했던 영혜를 구원해준 것이 바로 형부가 그려준 이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장면에서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가 떠올랐다. 내 여자의 열매 속 주인공인 아내도 영혜와 같이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주부였다. 어느 날부터 피멍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고 곧이어 식물이 되고자 한다. 결국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점차 식물이 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뻗으며 물을 갈구한다. 남편이 물을 부어주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솟구쳐 오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며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오면서 바람과 햇빛, 그리고 물만으로 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이 주인공과 같이 영혜도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 꽃이 되어 해방된 모습처럼 보였다. 그 해방이 처제와 형부라는 관계에서 가장 추악하고도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영혜의 삶이 얼마나 목말랐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편이다. 누군가가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를 위로 올려주는 것보다 그가 있는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영혜가 채식주의자라는 사회적인 틀에 갇혀 본인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 혼자 함몰되고 있을 때, 그 파도 속으로 같이 뛰어들어준 사람이 형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원에 누군가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둘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3부 「나무 불꽃」은 영혜의 언니인 인혜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가족들 모두 등

돌린 영혜를 돌보는 사람은 이제 '나'뿐이다. 영혜는 정신분열증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미음을 주입하는 링거조차 저항하며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간다. 영혜는 곧 자신이 말도, 생각도 점차 없어질 것이며 물과 햇빛만 필요로 하는 나무가 될 거라고 말한다. '나'는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영혜에게 이 모든 것이 꿈일지 모른다고 말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한 문장이「나무 불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왜 죽으면 안 될까. 왜 우리는 매일 한숨과 한탄으로 이루어진 삶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어쩌면 물과 햇빛만 받으며 생각 따위는 필요 없는 살아가는 나무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닐까. 이 책의 모든 인물들은 영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 정상적인 사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를 띤다. 누군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나무와 같이 항상 형제같이 붙어있고 언제나 올곧은, 아무런 욕망도 없는 삶을 살고 싶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삶을 몸소 실천한 것이 영혜이다. 비록 남이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영혜는 자신이 되고자하는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 내가 진정 되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내 몸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영혜가 부럽기도 하다. 주변의 제약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녀의 뿌리가 뻗어나갔을지도 궁금해진다. 이 책에서 가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영혜라면, 가장 현실과 맞아있고, 그래서 더 안쓰러웠던 사람은 영혜였다. 남편을 그리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을의 자리에서 항상 순종해왔고, 그런 남편과 관계를 가진 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을 안다.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우라는 자녀를 돌보는 엄마의 역할도 수행해야한다. 역할의 무게감이란 가중될수록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어쩌면 인해도 시간이 지나 영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깨달음의 시계가 영혜보다 조금 느렸을 뿐 인해도 자신 안에 있는 덩어리를 표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언젠가 나무가 되지 않을까.

『채식주의자』는 인물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 책이다. 한강 작가의 대부분의 책이 그러하듯이『채식주의자』 또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불행한 삶, 그리고 불행에서 해방된 인간의 삶을 한국의 정서로 잘 녹여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나의 내면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 한 명에 공감하는 비율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것을 좇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마지막으로 영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 억압하고 조롱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뾰족하지 않길 바라요. 둥글고 둥글어서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길 바라요. 나의 나무는 아직 당신만큼 자라지 못했나 봐요. 아직 뿌리들이 웅크리고 있어서, 가끔은 답답한 것 같기도 해요. 내 안에 피어날 나무가 당신의 나무처럼 곧고 침묵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불꽃이 일 때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당신의 언니도, 그리고 나도.




장려상

만년 뒤 우리의 후손에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경영학과 염수빈



사랑하는 인류, 그리고 나의 후손이여. 나는 당신의 시간으로부터 만년 전의 인류, 2024년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먼저 당신의 안부와 안녕을 묻습니다. 농업혁명이 기원 전 9500년 경 발생하였으니 현재 시간인 2024년으로부터 어림잡아 만 년, 당신의 시간은 그로부터 또 만 년이 지났겠군요. 당신이 실감할 수 있게 우리의 시간 격차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으로부터 만년 전이자 당신의 시간으로부터는 이만 년 전, 한순간의 '우연'은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생의 밀을 수확해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밀을 흘리는 바람에 밀들이 여러 곳에서 자라게 되었고, 우리의 선조들은 아예 밀이 많이 자라는 지역에 터를 잡아 정착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농업 혁명'의 시작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가 일용하는 대부분의 양식을 농사를 통해 얻기 때문에, 감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발전이지요. 인류는 그렇게 한 단계 더 완전한 세계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마냥 좋은 변화만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농업을 시작한 후 인류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렵과 채집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가 결집된 과일과 고기 등을 먹었다면, 농업을 통해 삼시 세끼를 밀 혹은 작물만 먹게 된 것이지요. 또한 단일재배로 인해 흉년 발생 시, 굶어 죽는 인간의 숫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축화로 인해 동물로부터 옮긴 전염병으로 죽는 인원 역시 늘어났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일 것입니다. 농업이란 대발견을 알아버린 이상 인류는 더 이상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이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농업을 해야만 겨우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농업은 인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자원을 얻게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로부터 완전히 행복해질 순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시간은 그로부터 다시 만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창궐하고, 인류는 밀에 의존하며, 인간의 노동 시간 대비 행복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세상은 이제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돈과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한답니다. 엄청난 대발견이라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우리의 편의를 위한 혁명적인

신기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요즘엔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 발견이 인류에게, 혹은 이 지구에 더 나은 방향일까요? 이 발견 끝에 인류는 기어코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후, 우리 인류는 야생의 동물들을 가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년이 지난 지금은 동물을 사유화하고, 그들의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닭, 소, 돼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한 칸 남짓한 우리 안에서 가혹한 사육을 할 것이고, 전 오늘도 그들이 제공하는 고기를 소비하였어요. 누군가는 종의 행복과 개체의 행복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하더군요. 우리 인간을 한 종으로 보았을 때, 인류의 행복은 개체 수를 증식하는 것이겠지요.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지구상에는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수백억 마리의 소와 닭, 돼지 등의 전성기는 더할 나위 없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잔혹하게 이토록 사육 당하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스운 소리지만, 저는 이게 비단 인류에게 착취당하는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삶의 편의를 증진시켜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한때는 그 행복을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은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간 돈을 향한 믿음이 허황된 것이라는 걸 사람들도 깨달겠지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어떤 것이 그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까요?

인간이란 상상하는 존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할 신을 찾고, 숭배할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늘일 수도, 동물일 수도, 석상일 수도, 사람일 수도,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사실 의미는 없다고, 사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란 없고 정해진 방향 같은 것도 없다고 감히 말해 봅니다. 옳다고 믿어서 자행했고, 그르다고 믿었기에 내쳤던 인류 역사상 모든 것들은 사실 동등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신은 단 한 번도 우릴 위해 준

재한 적 없었다고, 그렇게 감히 말해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읽는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인류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낸 존재에 불과하지요. 만에 하나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신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신의 형태는 아닐 테지요. 혹여나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혹은 당신의 시간 속엔 신이 실존한다면, 지금 제가 범하는 이 무례를 부디 너그럽이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이 만약 정의롭고 선한 존재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너무 많은 비극과 고통이 지금 이 세상엔 너무 많으니까요. 그동안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뚜렷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신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궁극적인 선의 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선행과 악행을 저질러 왔으니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짊어지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악이라는 개념 역시 인간의 시선에서 정립된 불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당장 제겐 악한 행동들이 당신의 시간에선 선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선 선한 의도로 행했던 행동들이 지구 반대편의 공간에선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즉,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사회적 속성에 따른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법과 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 합의에 따라 만든 인위적인 울타리일 뿐이며, 그 속에 도덕적 진리는 없습니다. 천부인권이란 것도 사실 허상일 뿐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존엄하고 귀중한 생명이며 그렇기에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면, 이 세상엔 미와 추,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애초부터 존재해선 안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순간의 우연이 말도 안되는 발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혁명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우연들이 있었지요. 그로 인한 변화는 어떠한

방향성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그 안엔 어떤 선악도, 진리도, 하물며 가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우연의 결과로 지금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지금 전 당신에게 삶의 무상함에 대한 두서 없는 편지를 쓰고 있지요. 나는 삶의 우연성을 깨닫고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나는 당신의 시간을 그저 막연히 상상해볼 뿐입니다.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은 어떤 외형을 하고 있으며, 당신에겐 어떤 믿음이 자리할까요.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나의 후손이여. 당신의 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가 이전에 존재했고, 당신은 우리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지나 비로소 존재하는 인류의 뿌리이자 씨앗입니다. 당신이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나의 위로이자 한탄과도 같은 편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당신을 상상하며 힘을 내볼 테니.




장려상

울프의 시선으로 현대를 읽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고

영어영문학과 나영서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작가가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남성이다. 왜일까?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서일까? 아니면 여성은 훌륭한 글을 쓸 수 없는 열등한 존재여서일까? 버지니아 울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성이 왜 글을 쓸 수 없는지부터 고민해본다. 영국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평가받는 ‘버지니아 울프’가 기록한『자기만의 방』은 1929년 발표된 에세이로, ‘여성과 픽션’에 대한 울프의 선구적인 아이디어와 사상을 담고 있다. 울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여성 작가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에서 울프가 던진 메시지는 울프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관점을 냉철하게 반영하면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나는 현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울프는 여성이 픽션을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이다. 여성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이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19세기 당시의 사회적 제약과 여성의 예술적 창의성을 방해하고 억압했던 환경을 비판한다. 둘째는 돈이다. 창작 활동에 전념하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이 작가로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환경에서 여성들이 이 두 가지를 갖기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물질적인 무형의 어려움이 남성들보다 더 크게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이 주어지는 것이 고통이었다면, 여성들에게는 세상의 적대감이 주어졌다. 여성은 좋은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 홀대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렇기에 샬롯 브론테와 조지 엘리엇처럼 여러 여성 작가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폄하되지 않기 위해 익명성의 힘을 빌려 작품을 출간해야 했다. 이 점을 지적하며 울프는 여성이 셰익스피어 같은 천재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셰익스피어의 누이를 사례로 들어 반박한다.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

을 상황을 가정해보면, 셰익스피어는 남자라 교육의 기회를 얻어 문법학교에 다니며 기본 문법들과 논리학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누이라면 여자이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결혼을 강요받았으며 집안일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비난받았을 것이다. 울프는 여성이 천재적인 작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적 제약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울프는 여성 작가를 둘러싼 제약적인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 예견했다. 놀랍게도 울프는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앞날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한 세기 뒤쯤이면 여성은 보호받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되고,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기관사, 군인, 선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울프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이러한 위치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울프가 묘사한 1920년대의 여성의 상황을 현대와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로 울프가 예견한 것처럼 시대가 변하였다. 예전에는 주로 보호받는 존재로서 제한적인 삶을 보내던 여성들이 이제는 여성 기관사, 군인, 선원 등과 같이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직업을 성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울프는 계속해서 여성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역할의 제약과 남성 중심의 문화적 기대 때문에 자유롭게 예술을 표현할 기회가 제한되었다. 현대 여성 작가들도 이러한 사회적 제약과 여전히 싸워야 한다. 오늘날에도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 직업적 편견, 그리고 예술 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과거와 달리 성별에 따른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더욱 많은 관객에게 보여줄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남성 작가의 작품보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울프의 시대보다 많은 기회와 도전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가 1920년대에 제기한 여성 작가들의 처지와 현대 여성 작가들이 마주하는 성의 불평등성 문제는 여전히 유사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에는 성별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다 자유롭게 발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여성 예술가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예술적 창의성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다.

울프가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예술을 창조하는 데 ‘자신의 성별’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의 관점에서 단순히 여성을 찬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성별의 편을 드는 것을 강력히 꺼리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성별을 넘어서서 협력하고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적인 여성과 여성적인 남성이 되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진정한 평등과 창의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울프는 단순히 남성이 변한다고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여성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여성이 펜을 들고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들이 가만히 있던 수치스러운 무지함을 인정하면서도, 울프는 젊은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한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방에서 자유롭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버지니아 울프의『자기만의 방』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향한 선구적인 외침이다. 1920년대에 울프가 가졌던 생각들을 읽으며, 나는 울프가 제기한 문제들이 그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과 경제적 독립은 간단히 물리적 공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울프가 강조한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은 여전히 현대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울프가 강조한 ‘자기만의 방’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적 기대가 여성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로

서의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예술 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여성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울프가 바라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울프의 메시지를 통해 여성이 펜을 들어 글을 쓰는 용기를 찾고, 그 누구도 성별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과 픽션의 미래는 앞으로도 변화하고 발전하겠지만, 울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속해서 '성'에 의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현대의 여성 작가들은 울프가 바랐던 대로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예술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완전한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울프의 선구적인 아이디어와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여성 작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려상

경제적 가치 너머의 노동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을 읽고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이누리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을 읽게 된 동기는 현대 사회의 노동과 소비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함이었다. 일리치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생겨나는 불평등과 부조리함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에 일상에서의 노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다. 또한, 일리치의 저서는 경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길러주어, 현시대의 여러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하였다.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본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일리치는 먼저 '그림자 노동'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는 공식적인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수적인 노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가사 노동, 육아,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이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은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많은 활동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노동이라는 사실이었다. 특히 가사 노동과 육아 같은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측면이 강한데, 이는 성평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일리치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림자 노동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은폐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리치의 분석이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노동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리치는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지적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활동이 실제로는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노동에 대해 가지는 기존의 인식을 철저히 재고하게 만든다. 일리치의 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경제 활동 외에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나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가사 노동을 담당해 오셨다. 어머니의 하루는 가사일로 시작하여 가사 일로 끝났다. 어머니의 노동은 가족 모두의 일상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노동은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가치는 경제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일리치의 책을 읽으며 어머니의 그림자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는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 현대 사회의 구조가 성별, 직업, 계층에 따라 얼마나 불평등하게 짜여 있는지에 대한 일리치의 분석은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또 다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학교 저학년 때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때가

떠오른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은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시간이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봉사 활동 역시 그림자 노동의 일종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가치는 여전히 경제적 평가에서 제외되곤 한다. 일리치의 주장은 이러한 그림자 노동이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은폐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우리가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리치의 주장은 단순히 그림자 노동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주장으로, 실제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리치의 주장대로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자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개인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 중요한 저서이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이 실제로는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불평등한 노동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리치의 주장은 단순히 학문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든다. 그림자 노동은 단순히 가시적인 경제 활동 외에도 우리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찰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 평가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연결 지어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찰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가사 노동과 나의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그림자 노동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일리치의 책은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가 겪은 문제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찰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현대 사회의 노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자 노동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내가 이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은 우리의 일상에서 묵묵히 이루어지는 많은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나의 일상에서도 그림자 노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경험이 있다. 친척 동생을 돌보게 되면서 집에서의 청소와 정리, 아이를 돌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는 중요한 노동으로,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리치의 책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짚어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은 현대 사회의 노동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저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연결 지어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림자 노동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장려상

사이보그들로부터 ‘나의 이기심’을 인정하기

‘사이보그가 되다’을 읽고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이해솔



[현실 사이보그]

사이보그, 로봇과 결합하여 인간을 초월한 존재.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sf 영화, 소설에서 보여주는 사이보그는 보통의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졌다. 책을 읽기 전의 나는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문장을 불편함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로봇공학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 세계에 그려지는 사이보그는 상상하기 쉽다. 그럼, 오늘날의 현실 사이보그들을 상상해 보자.

저자들은 그 현실 사이보그가 바로 자신이라 답한다.

“김초엽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김원영은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듯, 우리는 기계와 결합한 유기체라는 점에서만 보아도 ‘사이보그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렇지만 보청기와 휠체어가 우리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마치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우리를 멋진 미래의 존재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사이보그가 되었다 중 들어가며〉

나의 아주 좁고 편협한 사이보그 정의를 뒤바꾼 문장이었다. 현실 사이보그는 사회에서 장애인이라 일컫는 기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기계를 몸에 연결한 장애인들을 오늘날의 사이보그라고 바라보는 것은 매우 낯설었다. 사이보그와 기술을 연관 지을 때, 사이보그에게 적용되는 기술들은 항상 최첨단과 지성의 집합체여야 하지만 오늘날 사이보그라 자신을 지칭한 사람들 대부분은 고도로 발달한 sf에 나올 법한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설령, 그들이 sf에 나오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사이보그가 된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장애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불편함을 완벽한 기술로 보완한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신체를 완전히 인정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김초엽 작가는 자신의 사이보그적인 모습을 되도록 숨기고자 했다. 겉으로 보이는 보청기보다는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감쪽같이 자연스러운 보청기를 구매했다. 그녀는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강의실에서 사이보그에 대해 배우면서 자기 자신 또한 사이보그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낀 감정은 고립감이었다. 평범한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화면 넘, 저 먼 곳 어딘가, 이 공간 바깥의 사이보그를 말할 때, 어쩌면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사이보그

일 수 있다는 어색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서술했다. 그녀 또한 자신이 사이보그라는 것에 어색해했지만 고유한 하나의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자신에 대해 인정했다. 신체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다시 살펴보자. 사이보그들은 '초월'한 존재인가. 그 편견이 그들에게 자신만의 신체를 부정하고 있도록 압박을 넣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사이보그들을 이미 만나고 있으면서도 귀 닫고 입 닫고 눈을 감으며 오직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기술로 소통하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술이 실현되기까지 너무 먼 미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극복'이라고 하는 것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연대이다. 오늘을 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극복하는 기술보다 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소통에도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은 속기, 음성 자막 변환 앱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말을 들을 수 있다. 굳이 말을 청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 청각을 통해 듣지 않아도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글을 보지 않고 청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소통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 모두가 평등한 무한한 세계가 있다.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두가 평등한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즉, 신체적, 정신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기술들은 이미 소통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각에 손상이 없으면 타인이 이야기하면 잘 들을 수 있고 시각에 손상이 없으면 타인이 글을 쓰면 잘 읽을 수 있다. 비장애인들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비장애인은 외국에 나가 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스마트폰에 한국말로 말하면 외국어로 번역해서 소통의 벽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 장애를 겪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과의 융합이라는 목표에서 사람 간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가 소통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나머지 그 중요한 사실

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크고 모호한 개념인 융합에 걸맞은 너무 거시적이고 막연한 대책인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을 내놓는 것일지도 모른다. 소통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제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목소리에 다가갈 때이다.

[이기적이면서도 함께인]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타자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시선으로 넓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편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신념과 겹치고 겹쳐보면 공통점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의 '특징'일 뿐이다. 그러나, 그 특징은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의 범주에 벗어난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된다. 모든 차별이 그러하듯, 나와 너를 명확히 분리한다. 그리고 그 분리하는 선을 지우는 것은 앞서 쓰기도 했던 소통이다. 그렇지만 소통해도 여전히 남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 부르는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에 대입해 보는 것이다. 역지사지가 대부분의 일상에서 통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나와 너는 달라서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지극히 '비장애인들의 입장'으로만 관심을 둔다.

책에 기재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은 비공개 동영상으로 된 현대 자동차의 '두 번째 걸음마', 음성 합성을 통해 들려오는 '첫소리'에서 보여주는 기술들을 '따뜻한 기술', '휴머니즘적 기술'로 걷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듣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김초엽 작가는 처음 듣는 소리가 정말로 기쁨인지 아니면 불쾌함인지 볼 수 없다고, 현실은 연출 바깥에 있다고 실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의 입장을 말한다.

머리를 한 대 맞은 심정이었다.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신체적 어려움을 기술로 극복한 광고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긍정적으로 시청했을 것이다. 보는 것, 듣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라는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통 융합의 해결책으로 나오는 기술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편적 설계를 따른다. 보편적 설계의 원칙을 살펴보면, 장애에 대

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결국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하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장애인들에게만 유용한 디자인은 보편적 설계보다 덜 가치 있다는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글을 읽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학습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남에게 기울여도, 현실 속 나는 내가 겪은 범위 안에서만 남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든 타인의 입장을 모두 알 것이라고 무의식중 생각하고 있었다. 약간의 수치심이 들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만하게 오직 나의 입장만을 고수한 것이 역설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나름의 노력이라서 더 마음이 힘들었다. 내가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고, 앞으로도 타자를 이해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세계를 타인의 세계처럼 설정해 놓은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에 대해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에 겸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오히려 시선의 방향이 ‘내’가 아닌 ‘타인’으로 다다른다. ‘타인’ 중에서도 아주 먼 옛날에는 괴물이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불렀을지도 모르는 장애인들의 소수성에 따른 고립성은 어쩌면 반대로 비장애인들의 고립된 사고에 비롯되었을 수 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더라도, 나만의 세계로 그들을 이해하더라도 혹은 그 반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소통해야 한다. 그 소통은 늘 그래왔듯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불쾌할 것이다. 결국 나와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되어 사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고립에서 벗어나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장애가 없는 사회가 아닐까.





장려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현대적 재해석과 사랑의 본질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법학부 황유빈



하루의 시간이 길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면, 하천을 산책하며 고전을 읽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 동시대에 쓰여진 소설이나 에세이보다 고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사의 수많은 굴곡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있는 대단한 문장의 모음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작품은 작가가 살아온 시대와 배경을 품고 있기에 동서고금과 시대를 불문하고 당시의 삶과 시대를 체험하는 여행과도 같기에, 살아보지 못한 모습과 방식을 직접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들은 <이토록 매혹적인 고전이라면>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오역을 지적하며, 본래의 제목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가 가장 유사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슬픔’일 때는 누구나 겪을 수 있을 법한 청춘 남녀의 비극적인 연애사가 아닐까 싶었는데, ‘고통’이라고 하니 낭만적이면서도 눈물겨운 연애사가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읽게 되었다.

독일의 문학가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대표적인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며, 비극적인 사랑과 심리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감성적이고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우연히 고향에 들렀다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룯테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기에,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깊게 사랑하게 된다. 그는 로테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며, 떨어져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녀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룯테로 채운다. 이러한 베르테르의 마음을 눈치 챈 로테는 베르테르의 마음을 접게 하기 위해 알베르트와 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계속하여 언급한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마음을 쉽게 다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고뇌가 깊어지고 심지어 상태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우울해진다. 결국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이리저리 헤메고 고향을 잠시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룯테를 향한 감정과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점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런 모습을 모두 보았던 룯테는 베르테르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만남을 자제하자고 이야기한다. 이에 베르테르는 룯테의 발언에 큰 절망을 받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불행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결국 베르테르는

롯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알베르트에게 빌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작품을 읽으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과거에는 큰 사랑을 받았으나 현재에는 호평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도서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베르테르의 사랑은 낭만적인 애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집착에 불과한 광적인 행위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젊은 청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베르테르와 같은 인물이 존재한다면 스토킹 범죄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현대 법률에서 스토킹 범죄의 기준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및 연락 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며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을 베르테르의 행동에 적용해 보면, 그는 롯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녀를 만나려하고 편지를 보내며 그녀의 일상생활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롯데는 베르테르의 접근과 집착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고, 더 이상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베르테르의 행동이 롯데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롯데의 거절은 작품의 여러 장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녀는 베르테르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고하며, 그의 행동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테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한다. 현대 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베르테르는 롯데의 명백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베르테르의 행위는 현대의 스토킹 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띠며,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재해석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는 무지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고전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세계관 및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학적 요소들을 집합적으로 봐라봤을 때에 비로소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괴테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괴테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동시에 불행이 원천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베르테르를 통하여 질풍노도와 낭만주의를 상징하려 했다. 그렇기에 작품 속에서 자연에 대한 찬미와 감정에 대한 세밀한 표현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아를 발견하며 개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 중요시 여기기도 했다. 이에 작품은 단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삼각 관계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사랑을 탐구한다. 그러나 고전적-시대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베르테르의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집착으로 나타난다. 사랑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상대에게 사랑을 강요하거나 열정만 내세워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거나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그저 사랑이라는 허울이 자 집착이다. 이를 방증하듯 베르테르는 룩테에 대한 감정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 이후로 계속 불행해지기만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고 상심한다. 베르테르의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단단한 신뢰가 쌓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고통과 갈등을 동반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갖는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또한 베르테르는 룩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고독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외로움과 고독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외로움의 시간을 깊이 사유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인 고독을 경험하기를 제안한다. 사람이 생각을 숙고하고 반성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 마지막 단계에서 타인과의 대화에 의미와 본질을 부여하는 능력에 바탕이 되는 숭고한 능력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으로 도망치는 자는 고독의 기회를 놓치고, 고독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박탈당했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고독이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지 다시

깨달을 수 있다.

사랑은 한 없이 어렵지만, 삶을 통째로 뒤바꿀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고, 결핍을 가진 서로를 채워주기도 한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낭만적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랑의 본질과 고독에 대해 깊게 성찰하며 현대 법적 시각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베르테르의 행동을 현대 법학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며 부각시킨다. 베르테르의 비극적 결말은 사랑과 감정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감정과 행복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이 독후감이 독자들에게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랑과 고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장려상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어떻게 접근하였는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창의융합학부 김민아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벨라루스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주로 구술 역사 및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구소련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그녀는 자신의 장르를 '목소리 소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특별한 구술방식을 나타낸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이 방식은 아래에서 다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 병사, 간호사, 스파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 등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독자를 이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집필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여성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 상황이 아닌, 여성들이 직접 겪었지만 잊혀진,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들의 애달픔과 고통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솔하게 담고 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들이 약 40여 년 동안 '침묵'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세상을 향해 여자들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역사와 기억 전달'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쟁사에서 소외된 목소리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책이 실제로 역사와 기억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알렉시예비치의 작품에서 전달되는 개인의 목소리가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집필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내용의 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남성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다보니³⁶ 폭로적인 성격을 띄기도 한다. 러시아군이 전쟁지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더러운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데, 포위망 안에서 위장한 채 죽기 직전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도, 죽기 전 '바바'를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차피 내일 아침 죽을 거 성관계를 맺자는 등의 예

36 박선주. (2019). 사라지는 말, 흩어지는 기억. 슬라브학보, 34(1), 23-43, 10.46694/JSS.2019.03.34.1.23

시들이 있다³⁷. 이 뿐만 아니라 전쟁 속 힘든 시기에는 소녀병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놓고 전쟁이 끝나자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에게 눈을 돌린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온다. 전쟁 상황 속에서조차 여성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존재, 황폐한 상황 속에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려줄 존재로 여긴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작가의 '목소리 소설'적 특성이 위와 같은 폭로적인 성격을 지니며 가감없이 역사를 전달한다는 장점을 지닐 뿐만 아니라 작가의 페미니스트적 생각이 집필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작가가 글을 쓸 때 작가의 관념을 배제한 채 '오롯이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그대로 담은 것을 통해 '전달'을 충실히 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나쁜 기억만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어린 소녀 병사들에게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였던 상관도 등장하고, 전쟁 속에서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험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여성들의 경험이 각자 다르므로 전쟁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고 작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다. 작가의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가가 이야기를 끌어내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들어주는 식으로 집필했음을 책을 읽으며 확인할 수 있다.

전쟁 중뿐만 아니라 전쟁 후의 삶에도 그들이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들을 책에서는 담고 있다.

'언니도 나도 의사의 길을 포기했어요. 전쟁 전에는 의사를 꿈꿨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바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우리한테 참전용사로서의 특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 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상상만 해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미 30년이

37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p.128

흐른 뒤였는데도 딸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의과대학을 단념시켰어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보여요...' 38

위 대화가 언급된 내용을 통해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위 내용은 남자, 여자 할 것 없는 내용이지만, 주로 남성들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전쟁 이야기가 여성 참전 병사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보통 총을 들고 적들과 싸우는 남자들, 그리고 집에 남아 아이들을 지키고 전쟁에 나간 남편들을 기다리는 여자들을 연상하기 쉽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하였고 똑같이 총을 드는 병사, 군차를 운전하는 운전병,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간호병이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싸웠던 여성들이 참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산 것이 현실이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세상이 기억해주지 않고 기록해주지 않았던, 그리고 외면받았던 여성 참전 병사들에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훈장도 안 달고 다녀. 전쟁이 끝나고 빵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는데, 공장장들 회의가 있어 갔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어. 트러스트 회장이, 자기도 여자면서 나보고 '남자도 아니면서 무슨 훈장은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느냐'고 핀잔을 주더라고.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웬지 전쟁터에서 받은 내 훈장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야.'³⁹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통을 보았고, 역시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 여성 참전 병사들을 알아주는데까지는 몇십 년이 지났다. 유명한 여기자 베라 트카첸코가 중앙일간지 '프라우다'에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싣고 나서야 정부에서도 나이가 사오십이 되도록 집도 없이 기숙사에 살고 있던 여성들에게 집을 내주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총을 들고 똑같이 싸운 군인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감을 찾아 전쟁터에 간 거고, 그곳에서 연애질만 실컷 하다가 왔다는

38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p.295

39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p.199

인식이 그 시기에 팽배했기에, 여성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의 명예스러운 참전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살기 위해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한국의 인식에도 '보호하는 남자, 보호받는 여자'라는 이항적인 대립이 여전히 존재한다. '성별 분업 구도에서 여성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 생활이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군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인식들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상에 알려려고 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그들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못했던 세계대전의 역사를 전달한 것이다. 또한 전쟁의 진실에만 집중한 다른 책들과는 달리 그 참담했던 전쟁 속에서 여성 참전 병사로서 경험했던 기억들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여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전쟁의 개념이 달라지거나 역사가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성이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과 전쟁 후의 트라우마, 성적인 차별 경험을 담는다면 전쟁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다.⁴¹

나 스스로만 돌아봐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 집을 잃고 정치를 헤매는 피난민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딱히 여성 참전 병사들을 떠올리지는 못했다. 사실 여성 참전 병사들의 존재를 특별히 알지도 못했다. 지금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욱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성 참전 병사들의 애달픈 이야기와 고통을 그대로 경험한 전쟁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준 이 책 덕분에 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했고, 전쟁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전쟁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이런 여성들의 아픔에 주목하여 주었고, 그들의 역사와 기억을 그대로 전달해주었기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전쟁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40 6·25 전쟁기 여성의 참전과 그들의 전쟁 경험 : 페미니스트 안보 연구의 접근, 김엘림, 2021

41 문경희. (2016). 여성의 경험으로 알려주는 전쟁의 진실. 한국여성학, 32(4), 165-177.




장려상

‘더 나은 세계에서 나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읽고

영어영문학과 신가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일의 교집합을 찾아야지.” 이러한 현상을 저자의 표현 ‘생산적 노예와 비생산적 자유 사이에서 자유를 찾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통 원인은 머리가 굽어지는 시기부터 줄곧 따라오는 진로 선택이다. 그리고 그 고민은 하고 싶은 일과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선택으로 항상 귀결되고 만다. 한살이 더 들어갈수록 내가 내리는 선택의 무게감이 더 느껴져 나 또한 점점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는 과정들이 가장 힘겨워졌다.

“노동은 의무적인 일이며, 작업은 창조적인 노력이고, 행위는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함께 경주하려는 노력이다.” 인간 활동의 의미를 설명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은 진로 고민으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깨달아 가는 과정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힘든 고3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졸업을 앞두고 나는 대화에서 사회의 현실을 직시했다. “돈이랑 취업 생각 안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했을 거야?” 이 질문에 다들 이상 반응이 없었다. 흥미만 고려했더라면 경제나 통계가 아닌 언어나 역사 같은 다른 전공을 선택했을 거란 친구들의 대답에 되레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질문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사회 구조와 현실임이 분명하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의해 젊은이들의 선택이 강요당하고 있다. 방대한 인간 조건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평범한 대학생인 나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더 나은 세계와 더 나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처한 현실과 함께 인간의 조건의 핵심인 노동, 작업, 행위의 개념을 아렌트의 방식을 차용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풀어내고 싶었다.

모든 인간은 언어와 행위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고 이야기를 만들기에 어떤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사회를 구조화시키는지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뱉는 말인 ‘먹고 살려고 한다’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면

왜 직업 선택이 인간 조건의 핵심이 될 만큼 중요한 과정이 되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인간은 지구라는 세계에서 행하고 관계 맺는 정치적 동물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들을 소유하고 삶의 방식인 노동을 정의할 수 있어야 나의 실존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결국 원하는 곳에 우리가 도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정신만큼 신체를 갖고 간다. 인간의 조건은 정신적인 사유 그 자체보다 신체 활동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조건, 즉 노동, 작업, 행위를 다룬다. 정신적 활동과 신체적 활동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인간실존을 형성하기에 균형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올바른 창틀을 갖는 것이다.

첫째로 인간은 탄생하면서부터 노동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노동의 어원은 고통이다. 즉 탄생의 고통이 노동이다. 노동은 탁월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필요성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인간의 행동을 일컫는다. 삶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노동이며 노동 자체만으론 행복감과 만족감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에서 해방됨은 공론 영역에서 해방되어 사적이고 본질적인 행복 추구를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 무 세계적 활동인 취미이다. 아렌트는 사적영역과 노동을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노동의 정반대를 개인의 덕과 재능에서 천부적으로 나오는 탁월성과 본질적 흥미 생활인 취미로 설명한다면 노동의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쉽다.

인간이 노동으로만 삶을 영위한다면 인간은 실존의 의미를 기계라는 도구에게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가진 능동성으로 도구를 제작 및 이용해왔다고 역사는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만을 추구하게 되면, 도구에 의해 자동화되고 수동화되고 마는 결과가 벌어진다.

노동이란 단어가 무서워지지 않은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리는 선택은 노동하는 나를 만드는 선택이다. 실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노동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주체성을 찾아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고찰은 인간 '실존'의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위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했다. 언젠가는 죽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유한성을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유한성을

인식한 채 내리는 우리의 '평생 직업' 선택은 어렵고 그 단어 자체도 폭력적이다.

둘째로 작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가치를 지니게 하는 창조적 노력을 포괄한다. 인간이 작업으로 만들어낸 것이 의자라고 한다면, 의자는 '사람이 앉는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를 변하지 않는 의자의 내재적, 객관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물과 달리 작업생산물은 세계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어떤 사물도 항상 변하는 관계 속에서는 객관적인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는 옆 물건과 비교 때문에 어떤 작업물도 내재적 가치를 지켜내기 어렵다.

인간이 하나의 사물로 시장에 내놓아진다면 마찬가지로 가치의 상실을 겪게 된다. 다른 후보자들 (상품)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원하는 목적 (거래)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입시와 취업 과정에 가장 적합한 단어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사람이 간택되기 때문이다. 20대로서 나라는 사람이 상품가치로 시장에 내놓아지는 것 같은 기분을 총 3번 느꼈다. 입시라는 시장, 해외유학의 시장, 그리고 취업이라는 시장이었다. 인간이 시장에 내놓아졌기에 사회의 흐름이 선호하는 '상'에 맞추어서 경험을 재단하게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인간이라는 상품이 몰리고,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 또한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희소성을 지키려고 한다. 이때 인간가치는 상품가치와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할 때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는 목적 지향적 노력이다. 삶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무를 자르듯 과정과 결과로 모든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모욕이란 생각한다. 틀에 엮나간 것은 잘려지는 요리의 모양들에 찍힌 것처럼 타인의 시선에 매력적이지 못한 나만의 것은 버려지는 반죽이 된다.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하면 성장해야 할 나무가 아닌 초라한 목재가 되듯이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의 축적물인 경험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경험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플라톤의 '바람은 더 이상 자연의 힘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로지 따뜻함과 시원함에 대한 인간 욕구와 관련해서만

생각될 것이다.'라는 말은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욕구 때문에 인간이 도구적 목적의 노예가 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한나아렌트는 세계라는 삶의 범주를 수단과 목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인간이 자연처럼 자동적 성격을 되찾기 위해선 스스로 움직이고, 자의적이고, 도구적 목적의 간섭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운동의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기 위해서'의 도구적 목적이 아니라 '~을 위해서'로 설명가능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고등학교 시절 칸트의 말을 변용하여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었다. 치열한 경쟁과 줄세우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사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나의 열정과 순수한 동기가 등수로만 보여지는 거 같아 속상했다. 나는 나만의 가치와 외면받고 소외받는 작은 것들을 추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모든 과목을 나의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동등하게 공부하고자 했다. 반영비율을 따지는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나를 위한 공부가 하고 싶었다. 이러한 나의 선택이 사회에 나와서는 요령이 없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듣게 했지만 아렌트 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셋 째로, 행위는 노동과 작업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써 삶이라는 경주를 타인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행위의 의미를 비로소 실현하기 위해선 크게 두가지가 필요하다. 도구적 목적이란 용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고, 나의 말과 행위가 증명되기 위해서 같은 순간을 공유하는 타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의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면 그 답은 '무용함과함께'에 있다. 저자는 예술 작품이 한 차원 더 높은 인간의 내용을 결정하는 특질인 이유에 대해 그것이 가진 '무용함'에 있다고 말했다. 무용함이란 단어는 쉽게 말해 '그냥'이란 단어와 같다고 생각한다.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왕립 발레학교 입학 면접이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다. 이 순간 왜 발레가 하고 싶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남긴 그의 대답은 '그냥'이다. 아무 의미도 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은 흥미가 있고 열정이 향한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아리스토텔

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인 최고의 덕목 또한 '흥미'에서 나온다고 했던 것과는 같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재적 가치, 영속적인 의미, 자신의 독자적 성격과 가치, 사용자체의 주관성이다. 다른 청춘들을 대변해서 말하고 싶다. 진심으로 열정이 향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수치적인 성공에는 실패했어도 더 나은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발짝 내딛는 것이라고. 성공했다면 이런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무엇이 되었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말이다.

열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의 최고 능력이자 가장 인간적인 활동은 무엇일까? 시작과 끝이 없고 무용함 밖에 남지 않는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성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경제학적, 과학적 용어인데 반해 인간을 동물과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예술은 무용함의 사유에서 나온다. 사회 내 여러가지 갈등을 막고자 한다면 더 편리하고 생산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수학과 과학의 법칙처럼 정의로 설명이 되는 세상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의 방식에 수학과 과학의 공식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나서 다른 생김새를 갖고, 후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다른 인격과 관점이 형성된다.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다. 아렌트의 용어로는 이를 다원성과 창발성이라고 칭한다. 지구라는 세계에서 가장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지만 우리 모두를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 또한 인간이다.

사람과 삶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학문에 대한 선호가 선행되어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생산과 기술적인 발전이 의미를 가진다.

저자 한나 아렌트 또한 과학과 수학에 대한 과대한 의존을 지적하며 그 세상이 왜 위험한지 설명한다. 엄습해오는 암울한 미래시대에서 기계에 종속되지 말라고 인간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정치적 동물인 인간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인간성의 상실과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한 비인간화 인간'를 최종적으로 끄집어내게 만든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빠른 발전 앞에서 인간의 주권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동시대인에게 가장 필요하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모두가 청춘이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자면,“삶은 과학 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장려상

놀이와 예술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을 읽고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임은정



놀이의 탄생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나는 동네 친구들과 이른바 ‘탐험’ 놀이를 즐겨 했다. 이 놀이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었는데, 예쁜 새 옷이 아니라 더러워져도 괜찮은 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의 잔 소리가 큰 몫을 차지했다. 각자의 집에서 꾸중을 받은 이후, 우리는 오로지 편하고 낡은 옷만을 입고 놀이를 시작했다.) 또 하나의 규칙은, 절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우리의 발로 직접 걸어서 온 동네를 탐험하고, 안 가본 길을 찾고, 새로운 건물을 발견하며, 심지어는 맨손으로 담을 타기도 했다. 언젠가 한 번은 건물 틈 사이로 작은 몸을 구겨 넣어 건물 외부의 배관을 함께 구경하였는데, 동네 어른신께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라며 꾸지람을 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모한 행동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았겠는가. 당시 어른신께서도 그저 해맑은 우리의 해명을 들으시고는 “아무리 그래도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진 말라”라며 꿀을 손에 쥐여 주고 시원하게 용서를 해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탐험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었다. 첫째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작정 걸으면, 어쨌든 길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많은 시간을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작정 걸어보는 것이 더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그래도 길을 모르겠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된다는 점이다. 공손한 태도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면 흔쾌히 도움을 주신다. 세 번만 질문하면 금세 길을 찾을 수 있다. 셋째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놀이가 타인에게 피해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여러 갈림길 중 직접 하나를 택했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더 나은 길은 없었는지, 나와 함께 걷는 이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 순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무엇을 배웠는지도 차마 자각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동네에서 모르는 길이 없었으며 언제나 용감했다.

이러한 용감한 어린이는 열심히 자라 어느새 현재의 내가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여전히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하다. 당장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 해도, 핸드폰 길 찾기 앱

을 검색해 최단 거리를 찾는다. 이렇게 집-학교의 패턴이 한 번 형성되면,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영혼 없이 걸어 목적지에 도달하곤 한다. 이 얼마나 재미없는 삶인가.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했던 ‘탐험’ 놀이를 다시금 재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일이었다. 어렸을 때는 지도조차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의 제한이 있고 공간도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일종의 힌트를 부여했다. 지하철 노선도를 한참 바라보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여러 개 구상해 보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오직 지하철로 가는 방법과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구분 짓는 점이다. 만약 버스로 이용하고 싶다면 교통이 가장 활발한 ‘여의도’나 ‘용산’에서 일단 내리면 된다. 역시, 너무 무모해 보이는가?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발상이다. 이곳에 들리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버스 노선도를 살살이 찾고 비교하면 학교까지 가는 방향의 버스를 곧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고안한 열 개가 넘는 루트 중 어제는, 여의도를 거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 미아역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았다. 어느 노선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비교하는 일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옳은 방향의 버스를 탔을 땐 정말 스스로가 대견해서 크게 소리치고 싶었다. 어제 알게 된 또 하나의 팁은 길을 모를 땐 그저 앞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어디인지 헤매다가, 문득 ‘내 앞의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영혼 없이 무리 지어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집-학교 패턴을 마냥 따르던 나의 모습과 겹쳐 보여서 이들을 무작정 따라가 보았는데, 놀랍게도 금방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찾을 수 있었다. 핸드폰만 보고 학교까지 가는 것보다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는 일련의 ‘탐험’ 놀이가 훨씬 재미있고 또한 매우 소중한 것이다.

책의 저자는 놀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놀이는 우리 자신만의 세계와 인격, 게임과 규칙, 장난감, 퍼즐을 만들게 하여 지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새로운 과학과 예술이 가능해진다고. 나는 이제, 스스로 무엇을 배웠는지도 자각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으로서 당분간 이 재미있는 놀이를 감사히 즐겨볼 생각이다. 누

가 알겠는가. 이 놀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질지!

예술의 탄생 첫 번째

나의 놀이를 즐기던 중, 너무나도 예쁜 하늘과 구름을 보았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구름이 모두 울퉁불퉁하잖아!’ 바로 휴대폰 메모장을 켜서 아래의 메모를 남겼다.

모난 구름 - 둥글게 살고 싶어도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 금세 멍이 드는 걸.

사실은 구름도 둥근 모양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을까? 자기들끼리 바람에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모난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다. 멍이 든 구름의 모습이 조금은 마음 아프면서도, 서로 개성을 뽐내는 것 같아 그 자체로 참 예쁘고 기억에 남았다. 모두가 둥글었다면 오히려 밋밋하지 않았을까? 구름이 모나서 참 다행이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기 위해 햇반을 뜯었다. 그런데 이게 웬 걸. 갑자기 포장지의 밥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 모두가 똑같은 획일적인 모양의 밥알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라며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어, 햇반 말고 차라리 내가 직접 밥을 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장에서 올해 수확한 햅쌀을 뜯어 압력밥솥에 담았다. 오랜만에 직접 밥을 짓는 거라 압력밥솥의 사용법이 조금 헷갈렸지만, 차근차근 정석대로 밥을 만들었다. 그러나 역시 경험이 부족했던 탓일까? 밥이 늘어 뜻하지 않게 늘은밥이 만들어졌다. ‘이거다!’ 싶어 늘은밥을 잘 말려 누룽지를 만들 수 있었다. 찰기 있는 밥, 늘은밥, 그중에서도 세모난 누룽지, 네모난 누룽지, 노란색 누룽지, 하얀색 누룽지 … 제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썩 훌륭했다. 맛도 좋았다. 식감이 다양해 먹는 재미까지 잡을 수 있었다.

모난 구름, 모난 누룽지. 모두가 동그랗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모난 부분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자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멍이 든 나의 모습도 그 자체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한다. ‘모나게 삽시다!’ 오늘의 놀

이에서 나의 예술이 탄생했다.

예술의 탄생 두 번째

길을 잃어 우연히 도달한 석파정 서울 미술관. 한량처럼 여유롭게 전시를 구경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은 사진을 찍고 밑의 설명을 곱씹어가며 주말의 나른한 일상을 즐겼다. 으레 직관과 상상력을 갖고 담으면 창조성이 발휘되는 법. 내 안의 영감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노란 옷을 입고 꽃다발을 든 여인을 그린 천경자 화백. 흰 동상 사이에 우뚝 솟은 노란색 동상. 술에 잔뜩 절여진 디즈니 공주들.... 인상 깊은 작품들은 나의 카메라 셔터에 의해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작품을 찍는 순간은 마치 내가 작품 속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촬영이 끝난 후 나는 곧 세계 속에서 완전히 추방되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내 손짓에 비로소 나의 의도가 담긴다.

주인공 -

오, 아름다운 나의 피사체!

널 영원히 기억하고자 함은,
널 한없이 표현하기 위함ियो.

나의 눈에 네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간에 네가 스며드는 것임을
내 정녕 알지 못했소.

행복한 노란색 옷을 입고
의미를 간직한 향기를 들어도
비로소 나 환히 웃을 수 없으니,
나의 그 많은 손짓이

하나의 께찮은 자아로 정리되기까지
조금만 천천히 노래를 불러 주시오.

나는 네게 눈부시고, 빛나며,
찬란한 세상을 안겨줄 수 있소.

하지만 난,
나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헤아리고, 빛을 내어,
아름다운 너의
더 아름다운 세상을 품고 싶소.

동화는 끝나고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살아가기에
이제 나 인생의 주인공을 맡아
감히 고귀한 대작에
초점을 두어 보도록 하겠소.

이어서 이중섭의 강인한 황소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다룬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고개 들어 별을 보세요. -

당신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별을 따다 내게 주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함께 별을 보세요.

그 옛날 목자가

길 잃은 소들의 끝없는 우리를 지어준 것은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이정표가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그 자리에 구름이 스쳐
잠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들이 본래 제 길을 되찾듯
우리의 별도 곧 제 빛을 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찾아온 이 노랑 빛이
언제나 저 자리에서 반겨줄 터이니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서로 맞대어
같은 곳을 향해 함께 향해합시다.

예술은, 생각은, 그저 우연히 탄생하지 않는다. 변뜩이는 발상을 인식하고,
이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패턴이 형성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
는 나의 패턴이, 깨어졌다가 다시 통합되는 나의 사고가, 나의 삶을 더욱 찬
란히 빛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오늘도 나의 예술을 탄생시키는 중
이다.




장려상

세상을 다정하고 따스하게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교육학과 김지수



삶이 항상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풀린다면 좋겠지만, 사실 삶은 그렇지 않은 않다.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부 변수가 바로 '섧득'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섧 수 없이 많은 섧득을 마주한다. 비즈니스에서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친구와 함께 저녁으로 먹을 메뉴를 정할 때, 심지어는 마트에서 과자를 구매할 때나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때조차 그 속에는 섧득이 있다.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은 모두 섧득으로 이루어졌다.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능하고 자기결정적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온전히 내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리라고 굳게 다짐한 경우일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모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휘둘려 약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마음을 끌어당겨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섧득'해야 한다. '섧득의 대부'라 불리는 로버트 치알디니는 <섧득의 심리학>에서 여섯가지 섧득의 기술을 소개한다. 나는 그 여섯가지 섧득의 기술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기술'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다시말해 '행복해지는' 기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Give and Take", 저자가 소개하는 여섯가지 기술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다. 상대방이 양보하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보답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즉 남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불편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도 양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양보를 주고받는, 내가 받았으면 나도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공공연하게 존재한다. 그 의무감을 기반으로 상호성의 원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감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한다.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한 상대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호의를 베풀어 상대의 보답을 유도하여 상호성 원칙의 위력을 이용해 승낙을 얻어내려는 계략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우리는 달갑지 않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나곤 한다. 다만 상대의 호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고, 상대의 호의가 사실은 더 큰 호의를 노리고 특별히 계획한 수단이자 술책이며 계략임을 알아차린 후는 이미 호의를 받은 터라 내키지 않는 상대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거절한 뒤 불공평 또는 무책임하다는 자책에 시달리게 되는 등 상호성의 원칙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겪기 십상이다.

상호성의 원칙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성 원칙의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언급했듯, 상대의 호의가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최악의 경우만 가정하고 타인의 호의를 무조건 거절하고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대처이다. 그렇게 한다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람들의 선의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상대의 호의를 의심하며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선의를 베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이상 선의가 오가지 않는 차갑고 메마른 사회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상호성의 원칙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호의를 우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나중에 음흉한 속셈이 드러날 경우 처음의 호의나 양보를 ‘술책’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다. 우리가 상대의 제안이 술책임을 인식하는 한, 상대는 더이상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할 수 없다. 상호성의 원칙이란 호의를 호의로 갚는 것이지, 속임수를 호의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호성의 원칙은 상대의 어떤 행동이든 같은 행동으로 되갚아 주라는 뜻이다. 만약 상대의 양보가 선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재정의할 경우, 우리도 상대의 양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 된다. 상호성의 원칙에 따르면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도 이용당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테니 경계하라는 뜻이다. 세상은, 특히 요즘은 더욱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대가 없는 호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만 같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기분 좋게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고, 상대의 친절이 다소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호의에 마음을 닫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게 해서 상호성의 원칙이 주는 의무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려면 진정 마음이 편안해질까? 당장 보답해야 하는 호의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잠시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저자의 해결책처럼 상대방이 건네는 작은 호의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여보는 것은 어떨까? 상대의 호의에 보답해야 한다는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말이다. 다정을 품은 사람들의 선한 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힘은 매우 크다.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눈맞춤, 밝은 인사,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손, 선뜻 빌려주는 펜, 오랜만에 묻는 안부, 함께 먹기 위해 준비한 작은 간식, 나뉘 쓰는 우산 등 다정함에서 오는 편안함과 행복감은 개인의 마음은 물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준다.

누군가 베푼 작은 호의를 내가 바로 그에게 비슷한 크기의 호의로 계산하여 갚는 것은 둘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거래일 뿐이다. 그저 호의가 오고 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건네는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호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호의처럼, 나 역시 호의를 베풀자. 그 상대가 누구이든 말이다. 내가 건넨 대가 없는 호의는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또다른 형태로 눈덩이처럼 부풀어 더 커다란 호의로 돌아온다. 여기서 호의의 확장이 일어난다. 더이상 당사자 둘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나를 시작으로 타인, 타인의 타인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의가 가진 다정하고 따스한 힘이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론 세상은 마냥 동화 같지 않다. 어른들은 사람을 적당히 믿어야 하며 자기 밥그릇 먼저 지키기 줄도 알아야 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로는 매정하고 차갑게, 단호한 태도로 타인을 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이다. 혹자는 순수함과 순진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순진함이 세상을 알지 못한 채 티 없이 맑은 상태를 의미한다면, 순수함은 세상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주관을 가진 채 못된 생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이다. 나는 순수함을 지향한다.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 호의가 있다는 것, 때로는 나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의 호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상대의 호의를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호의를 받으려 한다. 그것이 진정한 순수한 선의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좋다. 상호성의 원칙을 기억하며 말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 나에게서 시작된 작은 호의가 많은 사람들을 거쳐 세상에 온기를 전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혹시나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나의 호의를 이용하려 한다 해도, 스스로를 지키기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과 부당한 부탁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자라나고 있음을 믿는다.

책이 담고 있는 여섯가지 설득의 기술은 궁극적으로 '상호성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타인에게 설득 당하기보다 타인을 설득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독자들이 자기결정적인 삶, 즉 행복한 삶을 살고, 나아가 따뜻한 사회를 이루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있다. 나 역시 여전히 타인을 향한 경계심이 가득하지만, '설득의 기술', 나의 표현으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기술'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더 다정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다짐한다.




장려상

나를 잊지 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사회교육과 김세빈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빈틈없는 일상을 헤쳐 나가다 보면 가끔 들곤 하는 생각이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라는 일종의 땀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다망하게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조금의 여유를 만끽하게 되어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인간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을지 살피고 있었다. 그에 박차를 가하고 발전을 가져다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 프란츠 카프카 소설』이라는 도서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에 감회하여 정성스레 독후감을 작성해 보기로 하였다.

도서와 본 독후감을 상감하기 전, 준비를 위해 저자 ‘프란츠 카프카’를 간결히 소개해 보려 한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출신 유대계 독일 작가로,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존재와 소외, 허무를 다룬 실존주의 소설가다. 프라하의 독일어를 쓰는 중간계급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와의 갈등과 동생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관료 기구의 무자비성과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체험하였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해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무력한 인물들과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 20세기 세상의 불안과 소외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작품에 담겨있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를 마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 프란츠 카프카 소설』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소설은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장인물은 주인공 ‘그레고르’, 그의 여동생 ‘그레테’, 그의 아버지 ‘잡자 씨’, 그의 어머니 ‘잡자 부인’, 지배인, 파출부, 하숙인 3명이다.

제1장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난 옷 외판사원 그레고르는 몸이 평소와 같지 않았다. 평소에는 일찍이 울리는 알람을 듣고 제시간에 잘 일어났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몸이 전체적으로 어딘가 이상하게 변해있었다. 침대 밖으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지만 쉽지 않았다. 다리‘들이’ 고통에 찼다. 밖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소리, 누이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쉬이 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배인이 찾아와 그레고르와 어머니에게 해고 비슷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그는 몸과의 사투 끝에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관이었다. 지배인은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버

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문의 가로 폭보다 몸의 가로 폭이 커진 그레고르를 뒤에서 강하게 쳐 방으로 넣은 후, 문을 닫았다.

제2장의 줄거리이다. 방에서 어둠을 응시하는 그레고르는 부모님, 누이동생에게 좋은 집과 삶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아버지의 사업상 불행을 식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잊도록 노력하였다. 특별한 정열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 하룻밤 사이 딸단 점원에서 외판사원이 되었다. 성공적인 업무 수행은 즉시 증개료의 형태로 현금화되었고, 가족들은 놀라며 행복해했다. 그레고르의 그 시절은 멋졌다.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그때만큼 화려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익숙해졌고, 고마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특별한 온정은 없었다. 그래도 누이동생과 그레고르는 아직은 가까운 사이였다. -벌레가 되어 방에 갇힌 그레고르는 돈벌이의 필요성이 밖에서 들려올 때마다 부끄러움과 슬픔에 몸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누이동생이 바이올린과 음악에 흥미, 능력이 있어 그레고르는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내려 계획하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저녁에 설명하려 했었다.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누이동생 그레테는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보살펴 주었다. 그래도 그의 형상에는 익숙해질 수 없었고, 그레고르는 그녀를 위해 시트를 등에 걸치었다. 그날은 그레고르의 움직임에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 그레테와 어머니가 그의 방에서 가구들을 빼고 있었다. 어머니가 중간에 가구를 빼지 말자고 했지만, 그레테는 이를 거부했다. 그레고르는 어머니와 그레테가 방을 빠져나간 사이를 틈타 자신의 액자를 지키려 액자 위에 몸을 밀착시켰다. 그를 발견한 누이동생은 어머니가 보기 전에 그녀에게 자연스레 나가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보게 되었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약을 가지러 간 누이동생에게 가기 위해 그는 방에서 빠져나왔고, 그녀는 그런 그를 발견하고는 약을 서둘러 챙긴 후 어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행 경비원 차림새의 잡자 씨가 왔다. 그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졌다. 폭! 등에 사과 하나가 박혔다. 그레고르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자신을 살려줄 것을 애원하는 장면을 보았다.

제3장으로 줄거리를 마무리해 본다. 어머니는 바느질했다. 누이동생은 판매원이 되었다. 가끔 파출부가 그레고르의 방에 오긴 했지만, 그레테는 더 이상

그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숙인 3명이 방 하나에 세를 들었고, 어찌다 누이동생이 그들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게 되었다. 그레테의 연주를 듣기 위해 그레고르는 방에서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하숙인들이 그런 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값을 내지 않고 방을 나간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레테가 그레고르를 쫓아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레고르가 방으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그레테가 문을 세계 닫아 그의 다리가 꺾이게 되었다. 그는 가족을 회상하며 감동과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 다음 날 파출부가 죽어있는 그레고르를 발견했다. 몸은 완전히 납작했고 바싹 말라 있었다. 그레고르가 죽은 것을 확인한 잠자 씨는 하숙인들에게 나가라 했고, 하숙인들은 모두 나갔다. 잠자 씨, 잠자 부인, 그레테 세 사람은 각자 결근계를 작성하고 몇 달 만에 하나가 되어 야외로 나섰다. 전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가는 그레테가 기지개를 켜고, 그러한 그레테를 보며 부모님은 그녀를 위한 착실한 남자를 구할 것을 생각했다. 작고 저렴하고 좋은 위치의 실용적인 집으로 이사 가서 말이다. 이렇게 소설은 그레고르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대조되는 남은 가족들의 희망찬 새 시작을 암시하며 끝이 난다.

소설을 탐독한 후 「변신」에서 그레고르의 변신은 그의 내적 소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 중 그는 아버지의 사업상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다. 돈을 가져다주는 그에게 특별한 온정을 지녔던 초반의 가족들은 더 이상 없었다. 그를 그저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여기는 가족만이 존재했다. 해가 지나도 일을 하고, 쉬고 싶어도 일을 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일을 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닌,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며 그만큼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레고르는 벗어날 수 없어 보였다. 그러나 변신한 후에는-비록 방이라는 공간에 갇혀 나갈 수 없었지만-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닌, 가족으로부터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레고르의 내적 소망

이 현실화하여 나타난 것이 벌레로의 변신이다.

그레고르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입히는 당사자는 그의 아버지란 사실은 어쩌면 아버지와는 같듯이 잦았던 작가 프란츠 카프카 본인의 아픔을 담아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제2장의 내용 중에서 돈벌이의 필요성이 들려올 때마다 부끄러움과 슬픔에 몸이 뜨거워졌다는 그레고르에 슬퍼지기도 하였다. 본인이 벌레로 변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벌레로 변하기 전에는 계속 가족에게 돈을 벌어들여 주었던 그레고르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고 슬프게 여기는 것에 그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제3장에서의 절반은 자살에 가까운 주인공의 죽음은 가족과의 화해와 가족의 희망을 위한 희생이었다. 개인적으로 내적 소망의 실현으로 조금이지만 보살핌을 받게 된 그가 죽음까지 가족의 희망을 위해 바쳤다는 사실은 팬스레 내가 비참해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였다. 그레고르가 그들을 부양한 기간과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헤아려 본다면 더 참담하다. 후자의 기간이 전자의 기간보다 훨씬 짧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자, 자신들을 위해 그가 헌신한 기간만큼도 보살펴 주지 못했다. 정확히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그의 가족은 그가 죽은 뒤 마치 걸리적이었던 장애물 하나, 집 앞마당에 박혔던 돌 하나가 빠진 듯했다. 그레고르의 죽음은 잠자 씨와 잠자 부인에게는 아들의 죽음일 터이고, 그레테에게는 오빠의 죽음일 터인데 슬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벌레의 형체로 사망하긴 했지만, 그를 위한 장례 하나 없었다. 오히려 흥분해 보였고, 그의 죽음을 기쁘게 기념하듯이 오랜만에 소풍을 나간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에게 응당한 보살핌도 안겨주지 못한 채 결국 암울한 현실에서부터의 도피라는 죽음의 선택지를 택하게 만든 그들에게 성이 나기도 했다.

작품의 해설을 찾아보니 「변신」을 '자유에 대한 좌절된 꿈'을 그려낸 소설이라고 하였다.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서 현실을 포기할 필요도 없는 방법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해설을 읽으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답을 구하기는 힘들었다. 제2장에서 벌레의 삶에

익숙해지려 하는 그레고르의 등에 박힌 기독교적 메타포 '인식의 열매' 사과의 의미를 인식한 직후에는 한숨이 들기도 했다. 사과가 몸에 박혀 썩어가는 상태는 인식이 생각 차원을 넘어 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에 따라 빠져린 고통을 느끼게 되고, 고통의 절정과 끝이 죽음이라고 하였다. 제2장의 끝자리에서 그레고르의 죽음을 암시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연즉 이 소설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고찰하는 중의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을까?

첫 번째로 '자아의 선택(혹은 분투)'이라는 답을 가져다주었다. 「변신」에서 그레고르는 일을 하여 돈을 벌으므로 가족을 부양해야겠다는 사회적 일상적 자아와 일을 그만두고 도피하여 휴식과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비일상적인 고통한 자아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두 자아가 부딪히고 다툰 결과 내적 소망인 후자의 자아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비일상적인 자아와 사회의 일상적인 자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자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선택의 예외로 분투도 있다. 분투는 두 자아를 공존시키고 싶다면 결맞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자아'와 관련되어 '나' '자신'을 잊지 말라는 깨달음을 암시하고 싶었던 나의 의도를 담은 것이 본 독후감의 제목인 '나를 잊지 마'다.

두 번째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또 다른 하나의 답을 가져다주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너무나 바쁘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설의 그레고르 집안과 같이 돈이 필요하다. 돈은 일을 해야 벌 수 있다. 자유를 포기하고 시간을 바쳐 일을 한다. 일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야만 할 일이 있기에 자유를 포기한다. 물론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놓치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닐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인간, 사람에게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음을 본 독후감 제목인 '나를 잊지 마'에 담아본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세 번째 답을 가져다주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게 된 후, 그는 가족들 사이에 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를 보살피 주었던 누이동생 그레테도 방을 치우고 식사를 챙겨 주고 그릇을 치우는 등의 일에는 익숙해졌지만, 그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에는 익숙해질 수 없었다. 외관 때문만이 어울릴 수 없었던 사유가 아니었다.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다급히 지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그레고르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동물의 목소리와 다를 바 없이 들렸으며, 의사 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다. 겉모습과 의사소통 부분 등에 있어서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그레고르의 모습에 가족들은 점점 인간이었던 그레고르를 잊어가는 듯 보였다. 그저 벌레일 뿐이었으며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했다. 이렇게 본인들과 비슷하지 않은, 동질성이 떨어지는 존재와 자신들을 구별하는 가족의 태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의 사람들과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공동체 속의 자신을 확인하며,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나를 잊지 마'라는 이 독후감의 제목에 '나'에 대해 잊지 않으려는 인간의 심리를 담는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 프란츠 카프카 소설』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나의 개인적인 고찰에 대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자아의 선택(혹은 분투)’, 두 번째는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 세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 한 소설에서 세 가지나 되는 답을 얻을 수 있었으니, 독서는 성공적이었으며 편익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의문에 대한 세 답변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파다한 답을 구하기 위한 나의 독서 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이상으로 인간의 존재에 관한 본인과 비슷한 고뇌를 가진 이들에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 프란츠 카프카 소설』을 소개·추천하며 독후감을 끝마친다.




장려상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경영학부 전지영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2023년도 초 즈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이 책을 소재로 한 질문을 하고 받은 답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하는 것이 유행했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쫓아내 버린다는 답변과 그와 반대로 벌레가 되어도 널 사랑해야지, 키워야지라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답변도 있었다. 만약 내가 그레고르처럼 벌레로 변해버린다면 이“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분명 내가 평소 자주 하던 습관을 하거나 나의 취향이 드러나는 물건을 택할 것이다. 그렇다. 벌레로 되어버린다면 나의 겉모습 중 그 무엇도 나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였을까. 『변신』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그레고르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그의 죽음과 상반되는 가족들의 활발함과 각박한 세상에 분노했다. 그레고르는 분명 등에 박힌 사과가 썩어 쫘은 것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향해 죽으라고 압박한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독(孤獨) 했을 것이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그를 철저히 소외(疏外) 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그에게 위안을 줄 수 없었고 결국 그의 죽음을 촉진시켰다. 이 “인간 소외”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기계문명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일도 적어졌다. 세상은 마치 커다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데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바퀴를 자신이라고 여기며 혼자 소외를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사실 작은 바퀴가 없으면 큰 바퀴도 돌아갈 수 없는데 말이다.

책을 읽으며 경제적 가치에 의해 소외당하는 인간을 보고 애통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의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답하려면 이 책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그레고르를 왜 하필이면 벌레로 변신시킨 것 인지부터 차근 차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벌레로 변한 후 스스로의 안위보다 회사에 가야 한다는 강박을 더 심하게 느꼈다. 심지어 그는 인간이라면 자유로이 살 권리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했다. 역지로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혹사시켰다. 만약 그레고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힘들음을 가족들에게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가족들은 스스로 할 일을 찾으며 그의 무거운 책임감을 덜어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레고르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카프카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레고르라는 인물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인간은 벌레나 다름없다**고 경각심을 주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보다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부를 위해서 스스로를 혹사시켜가며 일을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절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떤 목적도 자신이 자유로이 살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이 책은 전하고 있다.

그레고르라는 인물은 외판원이 되고 나서 부터 한 번도 회사에 병가를 내거나 결근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겨우 하루 회사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회사 지배인까지 집에 방문한 이야기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특히 회사원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소한 병쯤은 참아내야 한다고 지배인이 말했을 때, 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보다 회사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레고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낸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지배인의 말을 통해서 인간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지 않겠다는 각박한 사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도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집안의 가장, 외판원,

돈을 벌어서 주는 좋은 아들, 오빠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그의 몸 상태를 걱정하기보다 그가 회사에 못 나가는 것을 더 걱정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후에는 마치 물건이 망가진 것처럼 그의 쓸모가 없어진 것에 더 슬퍼하는 것 같았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애정(愛情) 어린 손길을 건네지 않았다. 그 애처로운 사실에 나는 비탄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과 역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시대에서 사회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변신』은 사람이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의 쓸모만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체계를 비판하고 그들에게 반성을 촉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살면서 맡게 되는 쓸모 있는 역할을 자기 자신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것은 그의 겉모습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들은 외면이 바뀌어버린 그를 외면(外面) 한다. 그는 여전히 그레고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연 겉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의 가족들 중 한 명의 외모가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고 두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외모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확률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칭할 때 “그 사람은 아주 예쁘게 생겼어.”라며 그의 외모부터 말하는 현상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당신의 가족의 외모가 달라져버렸다면 그가 당신의 가족이 아닌 게 되는가. 아니다. 여전히 그가 당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외모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한국의 문화

산업에서 외모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젠 인간소외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답할 수 있겠다. 우리는 한 인간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바라보려고 노력해야한다.

나는 이 해답을 통해 나 자신을 혐오하던 것을 멈출 수 있었다. 평소 나는 영상매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이상화되어있는 인물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평가하고 있었다. 영상 속 편협한 기준에 맞지 않는 나의 외모와 체형에 실망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벌써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하게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아직 직업도 갖지 않은 학생인 내가 너무 변변찮게 느껴졌다. 하지만 『변신』을 읽은 후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나의 외모, 직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외모가 예쁘건 못생기건

나의 체형이 날씬하건 뚱뚱하건

나의 직업이 있건 없건

나는 여전히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며,

하루를 정리하며 집 앞 놀이터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였다.

이 책이 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우리 대학교의 창의융합교양 대학 100선에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변신』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고찰해 봐야 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때때로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내가 나인 것이 싫어질 때 누구든지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기를 바란다. 막상 읽고 나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온전한 신념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이 남아 있을 것이다.





장려상

성과사회를 향한 냉철한 진단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고

지리학과 구은경



‘OECD 자살률 1위 국가’, ‘한국, 우울증 발생률 36.8%’, 이는 모두 한국, 우울증, 자살률 등의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 정보를 찾아보면 단번에 발견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한국 사회의 자살과 우울이 어찌면 타개될 수 없는 절대불변의 현상처럼 자리 잡은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 깊고 깊은 피로와 우울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작은 염원을 품고 글을 적어나가고자 한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짧지만 강렬한 책의 첫 문장이다. 면역학적 질병, 냉전,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면역학적 시대(외부의 이질성과 타자성에 저항하는 시대)를 지나 오늘날 후기 근대를 대표하는 주요 질병은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신경증적 질병이 되었다. 이는 외부의 어떤 자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저 내면의 자기 스스로가 질병의 이유가 된다. 한병철 교수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오늘날 ‘성과사회’에 있음을 꼬집으며, 성과사회의 병든 민낯과 이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책의 대전제는 오늘날 후기 근대 사회는 타인에 의해 자아를 규정당하고, 외부의 부정 분자가 내면에 침투하여 나의 자아를 부정하는 기존의 ‘부정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강제성을 띠는 법률과 규제, 금지에 바탕을 두는 규율사회의 소멸을 의미한다. 규율사회는 ‘하면 안 돼.’로 대표되는 부정성의 사회이며, 이러한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다. 반면 후기 근대 사회는 “할 수 있다.”와 같은 가치로 대표되는 ‘긍정성’ 과잉에 의한 병리적 상태이며, 개인은 규율기관에 의한 복종적 주체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주도성을 갖고 성과를 창출해내는 성과주체가 된다. 이는 성과사회의 등장을 의미하며, 책 속에서 시사하는 성과사회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과주체는 긍정성 과잉 상태 속에서 ‘할 수 없다’와 같은 옵션은 없기에, ‘포기’라는 선택권조차 박탈당한다. 따라서 인간은 더 많은 성과 창출을 위해 자신을 자폐적으로 착취하며,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여 탈진을 동반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성과주체는 더이상 외부의 강제성이 아닌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행동하기에, 자신의 병에 대해 자신 외의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성과주체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완전한 자유를 갈망해왔다. 주권을 찾기 위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정치적 자유를 위한 참정권 운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도 최고의 경제적 위치와 지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지위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며, 부모의 지위와 과거는 개인의 전부를 정의하고 속단하지 못한다. 상위의 위치는 더이상 기존의 소수 엘리트만을 허용하지 않는다. 꿈에 그린 삶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울한가.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를 두고 『피로사회』는 '보상구조의 이상'을 언급한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 소멸을 직면한다. 이러한 타자 관계의 소멸은 인정과 칭찬, 존경심을 통한 성취와 만족의 불가능을 낳는다. 이는 모두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원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이를 달성하더라도, 타자와의 관계가 소멸된 성과사회에선 성과주체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즉, 보상구조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보상구조의 이상은 성과주체로 하여금 아직 오지 않은 보상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만든다. 생각해보자. 십대들은 대학교에 가면 꿈에 그리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대학에 진학한 후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 후엔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집과 차,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위한 이직 등 또 다른 차원의 성과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러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성과를 위한 무한한 계단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계속된다.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만족할 수도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더 발전된 성과 창출을 위해 자신을 착취한다. 이러한 잘못된 보상구조에 의한 보상의 위기는 일의 최종적이고 완결한 형식을 불가능하게 하며, 성과주체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를 무감각

하게 만든다. 그렇게 성과주체는 꿈꾸는 충분한 성취를 위해 성과에 집착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성취에 점차 지쳐간다.

성과사회 속에서 성과주체가 패닉(panic)이 된 채로 속절없이 우울에 침전하는 현실도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토록 공황적인 상황 속에서 휴식과 깊은 심심함,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노를 통해 무위(無爲)의 힘을 길러야 함을 피력한다. 모든 긍정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막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성의 부활로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여러 자극과 긍정성에 대한 긍정의 문을 전부 개방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과 주체적인 조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이다. 저자는 저항의 수단으로 깊은 심심함과 분노, 무위(無爲)의 초점을 강조한다. 사색을 동반하는 깊은 심심함은 지나치게 다양한 과업과 정보 속에서의 정신적 이완을 도우며, 분노는 상황을 중단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의 힘’을 갖는다. 무위(無爲)는 개인적 성과를 향한 집착을 완화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한다. 즉, 일련의 ‘잠시 멈추는 행위’들을 통해 성과주체는 기존의 성과사회가 가졌던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탈진, 타자 관계 소멸로 인한 보상의 위기를 극복한다. 동시에 무위의 피로(성과 집착으로 인한 탈진 상태의 피로가 아닌 목적 지향에서 해방된 후의 피로) 속에서 태평한 여유와 어느 걱정도 없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피로사회』는 성과사회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통해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질병’으로서 사회를 접근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성과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한다. 어느 흑자도 책을 읽어 내려가고 결론에 다다를 때쯤엔 저자의 새로운 접근법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책의 결론에 다다랐을 때 마주한 건 ‘나 자신’이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출근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노력은 점차 성과에 대한 강박과 불안을 낳았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으며, 멈

출 수도 없는 상태. 그렇게 스스로를 갇아 먹어가며 탈진해가는 성과사회 속 무력한 인간은 나와 연관 없는 익명의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 생각해 보면 대학에 진학한 후 그 누구도 “학점은 잘 받아야 해.,” “스펙을 쌓아야 해.”와 같은 어떠한 강요와 단속도 하지 않았다.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 자유를 느끼고 있는 “대학생”임에도 역설적으로 나는 자유 속에서 나를 속박하고 강제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는 지쳐갔다. 무엇이든 가능한 이 사회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과도한 ‘긍정성’이 스스로 화를 불러온 것이다.

예상컨대 나의 경험에 많은 대학생, 더 나아가 많은 현대인이 공감할 것이다. 하늘의 신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삶을 책임져주지 않기에 삶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다. ‘내 것’, ‘내 몫’이 중요한 개별 사회에서 더 이상 타인과의 따뜻한 유대는 필수적이지 않다. 우리는 타인이 더 이상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만큼 개입하지 않는 ‘탈사사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충만해진 자아는 개인의 성과에 자폐적으로 매몰하게 만든다.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긍정성이 차고 넘치는 사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개인은 낙오자가 된다. 입시라는 게임에서, 취업이라는 게임에서, 생존이란 게임에서 우린 ‘LOSER’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다.

그러나 『피로사회』에서 현대 우울증과 자기착취의 원천으로 취급되는 ‘긍정성’을 무조건 타파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게 했으며, 이를 실현시키도록 했고, 이들의 실현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예를 들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처럼 말이다. 최소한 ‘어떤 것도 불가능해.’보단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긍정성이 세상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의 우리 사회는 너무 병들어 있다. 인류 전체의 거시적인 발전은 눈부실지 몰라도, 그 속의 개개인은 번아웃과 우울감에 허덕인다. 그 누구도 멈춰서고 포기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중단과 휴식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성과주체들에게 잠시 멈춰가도 괜찮다는 깊은 위로가 담긴 『피로사회』를 건네고 싶다. 무위(無爲)와 사색의 힘을 강조한 저자의 말처럼, 생산적이야야 한다는 강박은 내려놓고 잠시라도 우회하는 사색에 빠져보는 것

은 어떨까. 그동안 쓰디쓴 커피를 마셔가며 각성된 하루하루를 견뎌온 고생한 '나'를 위해서 말이다.




장려상

인간은 왜 협력하지 않는가?

마이클 토마셀로의 '이기적 원숭이와 이타적 인간'을 읽고

문화예술경영학과 윤채연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협력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예’라고 답할 것이다. 인간은 협력과 상호 부조를 통해 생존하고 번영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돕고 자원을 나누며 관습과 규범을 만들어냈기에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인간은 협력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부정하고자 한다. 인간은 서로 돕고 협력할 줄 아는 존재지만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인간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동의를 하기 어렵다. 이러한 협력은 명백히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그 협력의 본질과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즉, 인간의 협력이 단순한 이타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이 과연 진정으로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기적 원숭이와 이타적 인간>은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와 침팬지의 행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인간의 이타성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간의 이타성은 생존에 도움을 주기에 협력 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을 만들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즉 인간의 타고난 협력 정신이 인간의 사회적 성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협동에 의하여 인류가 성공했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책의 저자는 미국 발달 심리학자인 마이크 토마셀로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들과 침팬지의 행동 비교를 통해 영장류와 인간이 공통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우려는 본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과 유인원이 다른 점은 인간은 보다 나은 성과를 얻고자 이 본성을 강화하여 다소 독특한 제도를 만들고 이에 순응하게 하는 규범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의 이타적인 본성으로 협력하고자 하고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이 연구와 내가 알고 있는 사회 현상을 통해 인간의 이타성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깊어졌다.

작년 지자체와 환경청의 협력으로 거제시 노자산의 골프장 개발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실제 정부는 작년에 친환경 골프장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본질적으로 친환경적일 수 없다. 대규모 토지를 사용하는 스포츠인 골프장은 자연 파괴가 심각하기에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또한, 골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물과 농약 및 화학 비료 사용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친환경적 요소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는 인기 스포츠로 주목 받고 있기에 골프장 개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인간은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단기적인 이익과 유행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되었고 이는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인간은 협력할 수 있는 존재지만 자연과 협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간이 사는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거하거나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반면, 동물들은 자연에서 벌레와 같은 생명체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동물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태계 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은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생존한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간이 이타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일 수 없다는 근거다.

인간은 그럼 인간끼리만 협력하는가? 이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일생을 살펴만봐도 학생 때부터 치열한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 진학했음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학우들과 매 학기마다 경쟁해왔다. 그리고 대학의 명성에 따라 상위권, 중상

위권, 중위권 등 세세하게 분류되는 학벌 경쟁에 따라서 대기업은 꿈꾸기도 힘든 현실과 직면하여 중견 기업도 어려운 취업 경쟁으로 뛰어들어야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맛집이나 예쁜 곳을 가기 위해서는 웨이팅을 해야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인간이 협력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등의 경우를 통해 인간의 이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주로 나타나기에 이타성을 전반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마셀로는 인간이 협력하는 원인은 상호 부조적 성격을 띤 협동이 낳는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은 인간이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간이 항상 협력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은 정말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협력이 진정 이타적인지부터 의문이 들었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으로 인류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협력을 하지만, '협력을 했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전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쩌면 인간은 공동체 내 협력뿐만 아니라 파괴와 경쟁도 동반되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책은 '인간은 왜 협력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독자와 함께 협력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단순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 '인간은 협력하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인간 사회는 협력을 통해 지속되고 발전해왔다. 초기의 사냥과 채집 사회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복잡한 산업 사회에 이르기까지, 협력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인간은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해왔기에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기여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뒤에는 항상 어떤 형태의 이득이나 보상이 존재하며, 이는 인간의 행동이 철저히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협력은 단지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곧 인간의 이타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인간이 협력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기에 협력하였다고는 결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협력에는 복잡한 이면이 존재한다. 협력을 통해 생존해왔지만 이타적인 의도가 아닌 이기적인 본성으로 누군가를 파괴하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의 필요성은 인간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더욱 부각시킨다. 우리가 협력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환경과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협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환경 문제와 사회적 갈등은 협력의 부족과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제 거제시 시민들은 노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협력을 통해 1000여명의 시민이 골프장 건설 지정을 무효 처리해 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나는 인간이 단순히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협력이 진정으로 이타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본질과 그 이면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와 환경을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협력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려상

나는 작은 것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현대실용음악학과 이념경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작년부터 유행처럼 변신 화제의 질문. '내가 보기에 징그럽게 변하더라도 사람들은(혹은 우리 부모님만은) 나를 똑같이 바라봐 줄까?'라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서 나온 이 물음표는 SNS를 통해 누리꾼의 공감을 얻으며 온 국민을 철학자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흥미로운 논의에 과연 202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만 재미를 느꼈을까? 과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1915년에 살고 있는 발신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발 나도 끼워 줘!"라고. 이 즐거운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프란츠 카프카. 100여 년 전 동일한 물음에서 시작된 그의 소설 〈변신〉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우선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걸 왜 좋아해?'라는 의문 때문이다. 궁금증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비롯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SNS인 'X(구 Twitter)'에서 쉽 없이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 말하는 계정을 보며, 그의 소설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변함없이 좋아하는 걸까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친구가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과제의 주제 및 소재로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왜 그것이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변신〉의 문을 두드렸다.

〈변신〉은 앞서 언급했듯, 정말로 '내가 벌레가 된다면?'을 풀어낸 이야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며 네 식구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간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기 위해 그레고르가 잠에서 깨어난 그때, 자신의 모습이 흉측한 갑충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 민기 힘든 사실에 그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본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밖에서 가족들은 그레고르에게 왜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벌레가 되었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 그는 곧 간다며 대충 얼버무린다. 하지만 그런 그레고르를 이해해 주는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직장에서는 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낸다. 어서 밖으로 나오라고 재촉하는 지배인에게 몸이 아프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어 보

지만, 결국 그레고르의 방문은 열린다. 그의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그를 본 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변신>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이 겪는 급격한 생활 변화(특히 가정의 부재로 인한 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감정 변화를 서술한다.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갑충이 된 그레고르와 그를 보는 가족들의 감정의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는 벌레의 모습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당혹스러움과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통제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다리와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몸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의 행동을 그려낸다. 변신 초기, 그레고르의 여동생 그레테는 흥취한 모습으로 변한 자신의 오빠를 무서워하면서도 끼니를 취향에 맞게 세심하게 챙겨 주고 그의 방을 청소해 준다. 그 덕에 그레고르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인간이라는(혹은 인간이었다는) 정체성을 인지한다. 또한 비참해진 처지에서도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거나, 벽을 타고 다니는 등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느낀다.

그러나 가장이 없어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세 사람은 생계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일해야 했고 점차 여유를 잃어갔다. 지친 그의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사람 사이 정(情)이 수치화되어 굴박이라도 하는 듯 행동한다. 그레고르의 모습을 목격한 뒤 어머니와 동생이 크게 놀란 것을 본 아버지는 화가 나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지고, 그 사과 조각은 그레고르의 등에 꽂혀 그를 굶게 한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그레고르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의 감정선을 따라 우울이라는 파도에 휩쓸린다. 사과를 맞은 후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죽어-간다(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겨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 그 마저도 집에 머무르던 하숙인들과 가족들에게 존재를 들켜 더는 들을 수 없었고, 방에 처박혀 지내야 하는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죽음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상황과 그레고르를 내쫓자고 적극적으로 외치는 변해 버린 동생의 모습을 병치함으로써 감상자들이 그레고르와 함께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내 장면을 떠올리는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큰 슬픔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그래도 그레고

르가 죽었으니 이야기가 마무리되며 마음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겠지.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그레고르의 죽음과 동시에 가족 모두가 큰 짐을 덜어낸 듯, 인생에 찬란한 햇빛이 든 듯 행동하는 것을 보고 비수가 뚫고 간 자리 같이 마음이 쓰리고 공허했다. 그동안 홀로 가족들의 생계까지 챙기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그레고르의 모습과 그의 죽음에 환호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더욱 충격이 크게 다가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실제 결말이 맞나 싶어 '이게 진짜 끝?'이냐며 혼잣말을 5번 내뱉고 다른 마지막이 존재하지 않는지 찾아 보았다. 작품의 마무리가 아쉽다고 평가를 내리려고 할 때쯤, 갑자기 '아.'하고 머릿속에 큰 메아리가 울렸다. 책을 읽고 난 후 무(無)에 이르렀다가 다시 부메랑처럼 이내 모든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되돌아오는 상태, 작가가 원한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책의 내용을 되새김질 하며, 순간순간 변하는 그레고르 가족의 모습과 함께 문득 학창시절 배운 '도'의 개념이 떠올랐다. 도가에서는 옳고 그른 것, 착하고 나쁜 것, 아름답고 추한 것, 크고 작은 것의 비교는 모두 인위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만약 도가 사상의 가르침처럼 가족들이 미추(美醜)를 따지지 않고 그레고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면, 그가 처량한 신세로 삶을 마감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본질을 따졌다면……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다, 불현듯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인 러브버그를 징그럽다는 이유만으로 죽인 경험이 떠올랐다. 나 역시 인위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간인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변신>을 읽고 난 후로 갑충류를 보면 죽이거나 방생할 때 던지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괜스레 들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놓아주게 되었다. 그레고르의 마음에 이입하여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명체를 배려하려는 태도가 무의식 중에 자리잡은 것 같다. 한편 누군가는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헤아려 보면, 인류 거의 대부분이 그레고르의 가족처럼 만물을 상대적으로 따지며 살아 왔는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형보다 본질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성찰이 원동력이 되어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더 나은 사람'의 의미는 다른 이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일상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속이 병들지 않게 잠시라도 숨을 돌려 삶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면의 자아가 튼튼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인 책도 곁들여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고 허기진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좋겠다. 또한 이미 문학을 사랑하고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그레고르가 왜 벌레가 되었는지, 남은 가족들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었는지·그렇지 않으면 그레고르를 그리고 후회하며 여생을 살아갔는지 등)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소설을 즐겨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장려상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경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고

간호학과 정해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고 '살충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조는 다양한 과학적 자료를 통해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과 환경에서의 위험성, 그리고 현실적, 경제적으로 살충제 사용이 금지될 때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환경 문제로 확장시키는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했지만, 대학생이 된 후 제가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님과 박지선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침묵의 봄》의 내용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무관심함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침묵의 봄》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 이 독후감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봄은 주로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 겨울을 이긴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은 계획과 프로젝트의 시간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봄은 시작을 의미하고 가장 활기찬 생명력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책의 제목에서는 이런 봄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라 할 수 있는 새의 지저귀미 사라진 침묵을 이야기하며 생명이 없는 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역시 '알쓸범잡'에서 제목에 대해 “원래 봄은 침묵이 아니고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제목에서는 불길한 느낌이 들며 이는 인간이 살충제와 같은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뿌리는 바람에 새와 벌과 나비와 같은 생명체들이 다 죽어서 조용해진 봄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책에서는 DDT라는 화학약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DDT는 1870년대에 개발된 약품이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살인용 화학전을 연구하며 DDT에서 살충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원래는 살충제가 아닌 살상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충에는 놀라운 결과를 보인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후 DDT는 대규모로 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에서 60년대 방역차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DDT를 살포하였고 어린이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며 노는 일이 흔했습니다. 또 부모들 역시 그 차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헬기로 전국 거리에 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DDT는 자연에 축적되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 많이 농축되었습니다. 새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DDT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새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곤충을 통한 DDT 노출도 심각했습니다. DDT는 새들의 칼슘 대사를 방해하여 알껍질을 얇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알이 쉽게 깨지며 조류의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또 토양에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자원에 노출된 DDT는 물고기와 다른 수중생물이 DDT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토양에 침투한 DDT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농작물에서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DDT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재앙은 "침묵의 봄"에서 특히 강조됩니다. 레이첼 카슨은 이 책을 통해 화학물질이 자연환경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DDT와 같은 살충제들이 토양과 수원을 오염시키고, 야생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DDT는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되었고, 이는 상위 포식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들은 이로 인해 생식 문제가 발생하고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단지 자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DDT의 사용은 처음에는 농작물의 병충해를 막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대가가 너무도 컸습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레이첼 카슨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현대에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이 없는 기술의 오남용은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불러왔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보아도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무관심이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원래 가습기의 물을 살균하여 공기 중의 세균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었지만, 이 살균제가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DDT 사용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편

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폐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미래에는 현재보다도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비단 인간뿐만 아닌 자연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기술의 적용에는 충분한 고려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침묵의 봄>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DDT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망각한 것처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반성하며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닌 그저 하나의 종이고 자연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묵의 봄에서 저자가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해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자연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존재하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고 한 말처럼 기술이 실생활 특히 자연에 적용되기 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종종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우리는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자연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과

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의 기술 발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공존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자연 보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장려상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이 되는 사회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고

경영학과 원지원



“Yes, We can.”,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일상 속 어디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슬로건이다. 이 문구가 어떻게 들리는가? 적어도 나에게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주고, 긍정의 힘을 전해주는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종종 학업이나 일과에 지쳤을 때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에 이러한 문구를 보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성질, ‘자기 효능감’에 대한 긍정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⁴²를 뜻한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 장려된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은 책과 인터넷 그 어디서든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학습 분야에서는 이제 너무나 자주 등장해 뻔하기도 한 단어가 되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이자 우리의 발전을 격려하는 사회. 「피로사회」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폭력성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21세기 사회를 이 책의 저자는 ‘성과사회’라 칭한다. 우리는 성과가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의미로, 각 개인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성과주체’라고 칭해진다. 그렇다면 성과사회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여러 가지 면을 가진 사회를 한 단어로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전의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칭한다. 규율이 사회의 지배적인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규율사회는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강제의 부정성이 갖든 의미)’ 등의 조동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처럼 부정성을 강조하는 규율사회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인 것의 구분이 뚜렷하다. 규율사회의 이분법적 의식은 병원, 감옥, 정신병자 수용소 등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관으로 대표된다. 규율사회의 주체는 ‘복종적 주체’로, 복종적 주체에게는 규율사회의 조동사에 충실히 따를 것이 내면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게도 적용되는 면이 있다. 여전히 우리는 사회에서 부정성에 의해 법과 사회의 규율을 따르

42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며 살아가고, 규율사회의 장치(병원, 감옥 등)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를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 시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단어는 ‘성과사회’이다.

성과사회는 부정성이 약화된 사회이다. 성과사회를 지배하는 조동사는 ‘할 수 있음’, ‘에스 위 캔’이라는 복수형 긍정 조동사이다. 이처럼 성과사회는 규율사회와 달리 긍정성을 강조한다. 성과사회는 규율사회의 여러 규제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사회적 기초의 변화는 우리 주변 사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어왔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2010년에 공포되어, 현재 폐지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여전히 혼인과 혈연의 틀에 묶여있는 가족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자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어 2023년 최초로 발의되고, 현재 많은 논박이 오가고 있는 생활동반자법 또한 기존 사회의 여러 규제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일관된 움직임이다. 이처럼 탈규제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규제 대신 변화의 산물로 제시된 지배적 키워드는 ‘성과’이다. 기존 규율사회의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성과사회에서는 동기부여, initiative 등이 대신한다. 성과사회의 주체들은 ‘성과주체’로, 성과주체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여야 하는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1인 기업’이다. 규율사회에서 실패자로 여겨지는 주체들은 범죄자가 되거나 광인이 되는데, 성과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주체들은 낙오자 혹은 우울증 환자가 된다. 성과를 향한 사회의 끊임없는 압력이 개인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규율사회와 성과사회의 차이점과 각 사회가 낳는 실패한 인물상, 그리고 그 원인을 비교하여 깊게 생각하여 봄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변화했는지 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결과과 문제점을 꼬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율사회와 성과사회의 비교는 어렵지 않다. 대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차이점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규율사회는 개인에게 박탈, 배제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규율사회에는 나와 타자 사이의 경계

선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나와 남은 다른 존재이다. 다름은 곧 낯섦으로 작용한다. 타자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 '이질성'을 구분해 내기 위한 것이 금지와 강제이고, 나아가 이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가 법과 제도이다. 반대로 성과사회는 오히려 '이질성'과 '타자성'이 소멸된 사회이다. 규율사회와 달리 성과사회의 '차이'는 배척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과사회에서 차이는 그 자체로 유용해진다. 소비가 활성화된 시대에서 차이란 좋은 셀링 포인트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 예로는 타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이질성과 타자성의 소멸은 탈규제 경향과도 이어진다. '탈'과 '규제'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성과사회에서는 모든 방면에서 경계를 제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다. 성과사회의 성과주체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너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과 행동 또한 누군가에게 부정 받지 않으며, 나를 지배하는 주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 존재 자체도 부정 받지 않는 셈이다. 대신 성과사회의 성과주체들은 '긍정'한다. 나와 다른 너를 긍정하고, 내 능력과 행동을 스스로 긍정한다.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인다. 서로를 배척하고 지배주체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규율사회의 삶보다 성과사회의 삶이 더 발전된 삶이라는 사실은 자명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처럼 정말 성과사회가 유토피아적 사회라면 모든 성과주체는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 환자, 낙오자, 소진증후군(번아웃)은 성과사회가 유토피아적 사회가 아님을 방증한다.

성과사회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긍정성의 과잉이다. 성과주체에게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성과주체는 복종, 의무 이행의 측면이 아니라 자유, 선호에 따라 노동한다. 성과주체는 나를 향한 타자의 부정 성과 지배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노동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과주체의 지배주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자신으로 변화했을 뿐이다. 성과주체는 타자의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결과적으로 자유에서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 자유는 결국 곧 폭력이 된다. 이러한

자발적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동반되므로 타자에 의한 착취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별다른 문제를 낳지 않는다. 자기 착취의 부정적 영향은 오로지 착취자이자 피착취자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성과주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확대하며 우울증과 소진증후군같은 질병에 고통받는다.

이러한 성과를 향한 개인들의 집착적 지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또한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아의 정립은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과 타자의 비교, 대립을 통해 나의 위치와 성질이 비로소 본인에게 인지적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성이 과잉된 성과사회에서는 나와 타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타자관계는 소실되고 자아의 개념이 개인에게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다. 그 결과 자아가 없는 불안정한 주체들에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주체들의 예외적인 상태나 사회가 주입하는 성공의 모델 등이 주입되고, 주체는 이를 무분별하게 내재화한다. 결국 성과주체의 기대는 끝없이 올라가고, 성과주체들은 그 어떤 행동과 결과에도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게다가 지배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과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주체도 없다. 나 자신이 스스로의 성과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자아는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만을 바랄 뿐이다. 결국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를 결코 느낄 수 없는 성과주체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것은 객관적인 '만족'과 '완성'이 없는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이다.

이처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데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자아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신체의 건강뿐이다. 끊임없이 노력해도 결코 노력의 끝을 제시하지 않는 사회에서 신체의 건강만은 노력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이 한창 뜨거운 주제인 현상과 조응한다고 본다.

한참 '제로 슈거' 열풍이 분 후 이제 제로 버전을 내놓지 않는 음료를 찾기가 드물 정도로 제로 슈거 음료수는 지속적으로 불티나게 팔린다. 편의점 단백질 음료의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며, 예전에는 헬스 트레이너나 짙는 것으로

여겨지던 바디프로필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졌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보며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건강을 향해 이전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 현상은 어쩌면 정신적으로 소진된 성과주체의 자아들의 절규로 들리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끝없이, 빠르게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성과주체의 성과를 향한 집착을 가속화한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은 나와 타자 사이의 거리감을 더욱더 좁혀놓는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무력화된 상상적 가상 공간에서 자아가 구애받는 범위는 줄어들는다. 결국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자아가 활동함으로써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것은 비타자화된 타자이고, 이는 곧 자아가 되며, 자기 자신이 된다. 저항성을 통해 존재감을 가지는 실재는 빠르게 흐려지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멈출 줄 모르는 가상화와 디지털화는 '나'라는 존재의 실재를 효과적으로 지워나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의 구조는 대체 무슨 장점이 있기에 계속해서 지속되며 자꾸만 탈진한 동시에 우울한 성과주체들을 양산하는가? 성과사회의 완결된 성과의 부재는 현시대의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에 충실하게 입각한 결과물이다.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경제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관심사는 구성원들의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자본일 뿐이다. 더 많은 자본은 자본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는 자본주의의 교조적 믿음의 근간이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생산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의 높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자본의 극대화를 더욱더 추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지배의 주체를 본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유에 의한 착취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자유에 의한 착취는 '나는 무한한 자유를 가졌고 자발적이며 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성과 주체의 환상을 든든한 무한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의도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원자화와 파편화 또한 제 몫을 함도 있다. 계속되는 성과의 요구에 지친 개인들은 타자를 제대로 보살피고 똑바로 인식할 여유를 잃어가고, 그 결과 개인

과 개인 간의 유대는 급속도로 약화된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개인을 고립시킨다. 또한 오늘날 현실에서 목적 없이 결속된 공동체는 매우 희귀하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웃 간의 정’, ‘품앗이 문화’,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등의 단어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성과주체들은 공동체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며, 대부분의 공동체는 성과 창출의 수단이 될 뿐이다.

성공이라는 이상에 피여 넘어간 성과주체들의 끝없는 노력과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는 마모의 반복이 모여 자본주의 시스템은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가 자신을 계속 갉아먹는 우울한 인간으로 마모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

저자는 이러한 현시대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관철한다. 저자는 “시스템이 이상적인 자아가 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망으로 지탱되고 있다면 개개인이 그러한 욕망의 허구성에 대해 각성하는 데에서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끝맺는다.

나 또한 궁극적으로 이 글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할 수 없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다.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믿음과 사회에 대한 애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성과사회가 점차 도핑사회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성과를 늘리기 위한 도핑의 역할을 확보 경로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용인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책에서는 외과의사가 신경향상제의 도움으로 수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외과의사의 신경향상제 사용에 동의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졌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저자는 독일에서 학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수로 이 책의 서술은 서구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저자의 활동지인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의 분단이 과거의 일이 된 현 통일국가이다. 국가 분단의 완결은 긍정성, 동일성의 원리가 강조되는 성과사회가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성과사회가 완

결된 사회가 보여주는 변화의 양상은 도핑사회로의 전환이다. 이와 달리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과사회이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독일과 달리 한국의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으며, 사회 여러 방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성과사회가 아직 자리 잡아가는 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독일의 사회 변화 양상을 통해 성과사회의 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성과사회에서 도핑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도핑이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도핑 약물의 사용이 만연한 사회는 더 비약적인 성과를 강요하는 사회로 흘러갈 뿐이다. 도핑사회는 결국 극도로 심화된 성과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성과사회는 심화될수록 우울하고 탈진한 개인들만을 양산할 뿐이다.

현재 사회의 시스템은 우리를 괴롭힌다. 성과주체인 우리는 성과를 향한 사회의 강요에 지친다. 지치는 우리의 속도와 반비례하듯, 야속하게도 사회는 매우 느리게,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때때로, 혹은 자주 ‘개인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어야 한다.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졌다. 한 명의 목소리는 작지만 한 명이 모여 만들어진 대중의 목소리는 커다랗고 유의미하다. 우리 모두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을 때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는 힘’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탈진하게 하도록 부추기는지, 우리의 탈진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어떤 것들을 재생산하는지 똑똑히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일을 멈출 수 있고, 비로소 사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사회의 폭력을 재생산하는 일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마모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스스로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장려상

자연의 욕망, 촉발의 꿈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국어국문학과 정미리



“꿈을 꿰어”

인간을 지배하지만 결코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공간. 과거의 죄책감과 혐오감, 목줄에 질질 끌려다니던 강아지처럼 끌려다니던 잠재된 트라우마는 꿈을 통해 돌아온다.

영혜는 돌연 고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이성이라는 걸멋 든 단어에 포장된 폭력에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영혜의 첫걸음이었다.

인간의 발전과 문명의 이룩은 이성을 통해 모습을 키워나갔다. 그것이 인류가 동물과 다른 이유이며, 인류가 거룩한 종족임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자유의지가 봉고 되기 시작했다. 이성은 더 이상 인간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곧 무의식에 비롯한 것이라고 했다. ‘꿈’이라는 무의식의 형체가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게 만든 기폭제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렇다면 왜, 영혜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고기를 거부하게 된 것일까.

*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영혜는 대표적인 가부장 제도의 피해자이다. 장녀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던 언니 인혜를 대신해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유년을 보냈으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정신적 폭력을 행하는 남편에 노출되게 되었다.

소설은 영혜 남편의 시선으로 시작한다. 남편에게서 영혜는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닌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비친다. 영혜의 신체는 사람의 몸이 아닌 여성의 몸으로써 평가되고 기능한다. 영혜는 남편의 작은 성기를 보완해줄 수 있기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혜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왔다. 아침마다 여섯시에 일어나 밥과 국, 생선 한 토막을 준비해 차려주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게에 보탬도 해주었다. 그랬던 영혜가 꿈을 꿰다는 말과 함께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을 갖다버렸다. 아내의 역할, 요리, 남편이 원하는 고기 반찬을 해주지 않으면서

작지만 여성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을 시작한다. 꿈이라는 무의식은 의식(이성)이 만들어낸 세상의 제도를 거스를 수 있는 욕망이다.

약육강식. 제국주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상. 토끼는 풀을 뜯어먹고, 호랑이는 그 토끼를 잡아먹고, 인간은 그 호랑이를 잡아 가족을 벗겨낸다. 약한 어린이 위에 어른들이 군림하며, 약한 여성 위에 남성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성이 내린 판단 하에 둥근 지구는 세모난 피라미드를 위에 올렸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이성적인 게 맞을까? 인간의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흰둥이를 오토바이에 묶어 동네를 두 바퀴, 세 바퀴, 달리게 하는 그 행동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내리치고 입을 벌려 억지로 탕수육을 옥여넣는 그 움직임이, 진정 이성적인 게 맞을까. 그런 야만성은 어쩌면 가장 동물적인 폭력일지도 모른다. 그런 동물성을 거부하려는 영혜의 태도는 가부장적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영혜의 욕망이자 저항이다.

다시 소설을 읽어본다. 권력의 형태가 이름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회사. 사장 부부 동반 모임에 영혜는 권력에 순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여성에게만 있는 신체. 젖가슴을 가려주는 브래지어는 역시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한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시간이 흐르고 장소는 바뀐다. 가족 모임에서 고기를 거부하는 영혜를 향해 가족들은 고기를 권유, 아니 강요한다. 결국 화가 난 아버지는 영혜의 뺨을 내려 치고 탕수육을 영혜의 입에 밀어넣는다. 베트남을 죽인 게 명예이자 혼장인 아버지. 전쟁 가해 국가의 국민임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는 영혜가 폭력적인 가부장 집안에 노출되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영혜는 남성의 폭력이 쏘서 넣은 탕수육을 뱉어낸다. 그리고 과도를 집어든다. 사시미칼이나 단도가 아닌, 과일을 자르는 과도로. 치켜든다. 손목으로 향한다. 튀어오르는 붉은 피. 사방에 흩어진다. 붉은 피. 열정. 영혜의 광기가 비로소 분출되던 순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혜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아내라는 자리가 사라진 영

혜는 본격적으로 식물이 될 준비를 한다. 이 준비 과정은 형부의 시선을 통해 진행된다.

*

그는 예술가이다. 그는 공연을 보며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와 아이가 있는 현실의 삶 속에 그런 이미지를 충족할 방법은 보이지 않기에 늘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처제 영혜의 몽고반점. 영혜의 몽고반점만이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자리하는 몽고반점은 곧 자연을 의미할 수도 있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가 훼손할 수 없는 푸른 점. 어떤 가치들이 바뀌놓을 수 없는 형태의 본래. 식물이 되고자 하는 영혜에게는 늘 몽고반점이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이 몽고반점을 의식하자 그의 성기는 부풀어버리고 만다.

섹스. 가장 동물적이며 본능적인 행위. 그는 섹스에 집착한다. 그는 섹스를 꽃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꽃. 식물. 영혜가 추구하는 그것. 그의 성기가 꽃같이 서서 영혜를 가리킨 이유이다.

둘의 섹스는 인간의 이성과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영혜는 처음에는 그와의 섹스를 거부하지만, 꽃이 된 그와의 섹스는 허락한다. 영혜에게 섹스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아니라 꽃이 되려는 욕망을 해소해줄 행위이다. 그러나 남성인 형부는 꽃(섹스)을 오로지 예술적인 본능으로만 좇는다. 그에게 섹스는 저항의 도구가 아니다. 이성이 만들어낸 예술을 완성해내기 위한 재료일뿐이다. 영혜의 여성으로서의 처절한 저항은 이성으로 둔갑한 남성의 동물적 본능의 소재가 된다.

한편 둘이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도 주목해 볼 만 하다. 근친이라는 인간의 규범에 어긋난 행위. 남편과의 섹스는 거부하지만, 형부와의 섹스는 허락하는 것. 사회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 가부장적 사회를 벗어나려는

영혜의 격렬한 몸부림이 근친 섹스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

영혜의 강렬한 욕망은 점점 더 몸집을 부풀려 나간다. 고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작은 꽃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은 단단히 뿌리를 내린 나무로 귀결된다. 영혜는 하다못해 물구나무를 서서 반대로 바닥에 서고야 만다. 반대의 움직임. 나무가 되려는 몸짓. 3부가 시작되며 우리는 영혜 언니인 인혜의 시선으로 나무가 된 영혜를 마주한다.

영혜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자연이 되고자 하는 광기는 죽음으로서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혜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나무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영혜. 모두가 떠난 그 영혜를 언니 인혜가 지키고 있다.

영혜의 종국은 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인 언니 인혜만이 보게 되었다. 언니 인혜 또한 가부장적 제도의 피해자이다. 장녀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에 기인한 생존 본능으로 겨우 피해간 것이었다. 성인이 된 인혜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며 가부장 제도에 다시 귀속된다.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 가부장 제도를 받아들여려는 태도. 영혜와 다른 인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각하지 못한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인혜는 세상을 거부하는 영혜가 잘 이해되지 않으며 안타깝지만 그래도 영혜의 곁에 유일하게 남는다.

피해자를 지켜보는 피해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인혜의 제물이 된 영혜. 영혜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인혜. 가부장 제도를 거부하는 영혜와 순응하는 인혜.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영혜의 저항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은 인혜뿐이다.

이 모습은 마치 영화 <장화홍련>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갈등의 대척점에 위치한 계모와 딸 수미와 수연. 잠깐 등장하는 단역 부부. 영화에 등장하는 세 번의 귀신은 모두 계모, 수미와 수연, 그리고 부부 중 아내만 본다. 여성의

공간 주방에서 등장하던 여자 귀신. 초경을 깨닫는 순간 등장하던 여자 귀신. 역올하게 죽은 여자의 딸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야 마침내 누군가가 들어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같은 피해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다.

영혜의 내면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식물. <장화홍련> 속 귀신과 같다. 인혜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식물. 아니면, 어찌면. 다른 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식물도 식물 나름 따위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인간의 기준을 통해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로 분류한다.

영화에서도 극 중 가장 큰 악역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와 남성은 끝까지 귀신을 보지 못하고 여성들을 이상하게 취급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서로에게, 남들에게 악인으로 각인된다.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인 그녀들. 인혜 또한 끝내 무언가를 생각한다. 꿈. 영혜의 저항을 촉발시켰던 무의식의 그것. 이성의 모순을 깨닫고 진정한 본능(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상상. 언젠가 깨어나야 할 현실이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기대해보는 가상. 인혜도 작은 저항을 본능해본다.




장려상

새로 태어날 '정의의 여신'을 위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법학부 임희정



‘유스티티아’는 정의의 여신 ‘디케’에게 형평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탄생한 오늘날 정의의 여신이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 해결을, 칼은 사회 질서를 어지르는 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유스티티아’의 조각상을 보면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이는 공평의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제목을 보니 정의의 여신이 떠올랐다. 오늘날 정의의 여신이 탄생하기 전까지 수많은 정의의 여신들이 탄생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도 시대를 거치며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의의 여신이 말하는 정의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도덕적 참여 정치를 언급하며 정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오늘날 정의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또한 오늘날의 정의가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세대 정의의 여신도 소멸을 면하진 못할 것이다.

2022년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는 ‘전장연 시위 오늘도 하나요?’, ‘시위 때문에 지각일 것 같은데 증명서 발급 어디서 하죠?’라는 글이 아침마다 올라왔었다. 이는 우리 학교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위’를 벌이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몇몇 학우들은 해당 시위에 불만을 토로했고 그 불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우들도 있었고 불만에 공감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불만을 제기하는 학우들은 왜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시위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가 주된 의견이었고, 그와 반대되는 학우들은 시위행위 자체가 불편함을 동반하며 이러한 불편함을 통해 일반인들과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므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발언이었다. 나는 후자의 의견을 지지했다. 나 또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생긴 것도 해당 시위 때문이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 운동은 지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내 안에서 되물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찾기 위해 책에서 서술한 것과 비슷하게 여러 사상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나의 정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불만을 제기하는 학우들은 공리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4호선으로 출퇴근, 등하교 또는 이동하는 다수의 행복을 침해하는 소수 장애인의 시위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관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발언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발언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달리는 기차를 멈추기 위해 한 사람을 철도로 밟으로써 철도에서 일을 하는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시겠습니까?”란 질문에 선불리 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굳이 시위운동을 하는 장소가 4호선이어야만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등 장애인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시위하면 되지 않느냐 말한다. 또한 출퇴근 및 등교 시간에 시위를 벌이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하는 시위에 대해선 시위 장소가 지하철이어도 좋다고 말한다. 해당 의견을 들으면 타당해 보인다. 정치권에 직접 말을 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시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다수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라는 물음을 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출퇴근 시간에, 4호선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 정당하므로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칸트의 권리 옹호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인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그 자체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면에 숨은 다른 동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주장하며 쾌락을 느꼈을 경우 또는 해당

주장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경우, 예를 들어 친구무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해당 주장을 찬성하는 태도를 내세우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칸트는 그들의 도덕적 가치는 쓸모없으므로 진정한 의견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조차 반박할 수 있다. 4호선을 이용하여 출근 또는 등교하는 상황에서 불편을 토로할 자유조차 없냐고 말이다. 시위를 벌이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각하지 않기 위해 수면을 포기하고 준비하는 상황은 분명히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닌가? 타인의 자유를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두 측면에 있는 사람들을 '존 롤스'의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주장하였을 때는 어떻게 주장할까? 원초적으로 평등한 경우 불만을 제기했던 학우 중에서 시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학우 중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롤스는 공리주의는 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원초적 평등 상황에선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이 장애인일 수 있는 상황. 즉 본인이 다수가 아닌 경우 자신은 억압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기에 롤스는 인간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인정하는 '차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롤스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위로 지각하거나 시위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지각을 면하기 위해 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롤스는 주장할 것이다.

나는 두 측면을 언급하고 그 측면에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왜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불편함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걸까? 최대 다수의 행복에 장애인의 권리가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보편적 도덕 가치를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혹은 원초적 평등 상태일 때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이클 샌델'은 말한다. 도덕적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적 연대로 인한 거부감이라고 나는 이를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적용하여 말하고 싶다. 우리가 행하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따른 무고한 시민의 피해

논쟁은 비장애인의 연대라는 공동체가 장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르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경험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라는 연대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여기는가? 라는 물음을 했을 때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배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국내 장애인 인구수는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이다. 그러나 길을 걸어가거나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요즘도 뉴스 기사로 자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아이와 함께 자살한 부모의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연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 같은 ‘아동 혐오’로 약자를 배척하고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다. 내 공동체가 아닌 자들이 나오는 불편함은 책에서 말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의 길고 높은 벽과 닮아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자신의 불공평을 인식하는 순간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흑인 인권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흑인과 백인의 동등한 자유를 위해,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기꺼이 투쟁하고 자유를 얻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도 이와 같다. 인간의 자유를 위하는 투쟁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동체에 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장애인 이동권의 정당성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위성을 가진다. 공리주의의 측면에서도, 정언명령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계약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및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가지는 권리다. 헌법은 인간이 인간으로 국가라는 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의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 또한 자신의 정의가 중요하듯 타인의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장애인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절대적 도덕을 위해, 사회적 계약을 맺은 계약을 통해,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 타인의 자유 또한 보장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활동이다. 우리는 태어나 끊임없이 배운다. 물론 국어, 수학, 영어 같은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회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된다. 무엇이든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다. 도덕과 정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으로 성장한다. 나는 이런 상호작용이 ‘마이클 샌델’이 언급하는 도덕적 참여 정치라고 생각한다. 도덕적 참여 정치를 통해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들이 수용하고 공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정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무리를 지어 문명을 이룩했을 때부터 정의의 여신은 소멸과 탄생을 반복했다. 상호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때로는 무력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자유를 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을 수도 있다.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그저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의의 개념은 지속해서 바뀌어 왔고 공동체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결과로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 논란이 많았던 휠체어 리프트가 철거되고 지하철역마다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더불어 그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정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 시작을 출발로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다.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는 다수로서,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로써, 원초적 평등 상황 속 선택 또는 자유의 측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정의

를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타인과 상호작용이라는 교육을 통해 자아와 가치관을 키워야 한다. 대화와 참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 간 상호작용을 통한 도덕적 정치 참여로 정립될 정의는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바야흐로 새로운 ‘유스티티아’의 탄생이다.




장려상

유토피아, 정말 ‘유토피아’인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진세영



이상(理想) 사회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이상에 가까운가? 우리는 현대 사회의 제도와 생활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제도나 생활방식 중에서 우리 사회에 차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편, 책 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는 진정한 ‘유토피아’인가에 대하여 탐구하고, 진정한 유토피아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덧붙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머스 모어가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토피아’란 작가 토머스 모어가 만든 단어로, ‘없는데’와 ‘장소’라는 뜻의 두 단어를 결합한 그리스 말이다.⁴³ 이는 모어가 지혜의 여신이 다스리는 곳을 찾으려 하다 결국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결론을 내어 정한 말이다. 동명의 책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탐험가 ‘라파엘’이 세계 이곳저곳의 관습과 제도, 통치 방식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파엘은 세상의 다양한 정책과 처벌 등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곁들인다. 이는 현실 사회에의 비판으로도 확장된다. 이어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상 사회인 ‘유토피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본문에는 다양한 유토피아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는데, 가장 ‘유토피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몇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정치적 측면이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도시의 언어, 관습, 제도, 법이 모두 같다. 이곳에서는 매년 관리를 선출하며 모든 공직자는 임기가 1년이다. 인구가 적당히 유지되도록 법으로 정해 두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삼는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이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만 일을 한다. 이때 모든 사람은 농사일과 그 외의 한 가지 일을 더 하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할 수 있다. 필수품에 한해서는 대가를 치르지

43 홍윤택,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2.

않고 그냥 얻을 수 있으며, 남는 물건은 나눈다. 또한, 사유재산이 없으며 금과 은, 귀금속과 같은 것을 천한 것으로 취급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토피아에서는 행복과 쾌락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만 어리석은 쾌락은 나쁜 것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쾌락을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두 종류로 나누며, 정신적 쾌락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유토피아 사회의 생활방식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의 자유가 유토피아 사회보다 훨씬 큰 범위로 보장된다. 유토피아에서는 ‘어리석은 쾌락’을 허용하지 않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것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쾌락을 용인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또한, 유토피아와 달리 우리 사회는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으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으로, 유사한 점 역시 존재한다. 민주주의 사회로써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유토피아 사회의 유사한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토피아의 사회 규범 중 어떤 요소를 차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유토피아에서 언급하는 ‘어리석은 쾌락’에 치중하고 있는 면이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나태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유토피아 사회와는 달리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경향이 있다. 물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나누려 하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빈민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 이상 사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습과 생활방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토피아와 유사한 사회의 모습도 존재한다. 플라톤의 이상 사회인 <국가>,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가 그 예시이다.

첫째, 플라톤의 <국가>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공화국을 이상적인 국가로 바라

보고 있다. 플라톤은 계급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세 개로 나누었고, 통치자와 방위자는 아내와 재산을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동 육아를 하여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플라톤의 국가론은 유토피아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집필할 때 국가론의 영향을 받아 집필한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둘째,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바라보았다. 마르크스는 분업을 폐지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차등 분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유재산권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토피아의 사회 모습과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고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왕과 국가가 없어야 한다고 보았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와 달리 유토피아는 민주주의 법치를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유토피아 사회는 정말 ‘유토피아’일까? 유토피아 사회의 규범을 보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많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농사일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이야기이다. 성실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성실한 사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규범들도 종종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선을 보는데, 남 녀는 나체로 선을 보아야 한다. 또한, 여행을 갈 때 무조건 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두 번 이상 어길 시에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 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토피아를 완벽한 ‘유토피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토피아는 의도되지 않았던 디스토피아의 자질을 품고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⁴⁵ 유토피아의 강제성과 낮은 자율성 자체가 디스토피아 세계라는 것이다.

영화 <더 기버: 기억전달자>에 등장하는 ‘커뮤니티’는 유토피아와 유사한 요

44 한보경,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 새로운 평화 국가의 탄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p.1.

45 Kumar, Krishan, “Science and Anti-Utopia: Aldous Huxley and Brave New World.” Utopia and Anti-utopia in Modern Times. Blackwell, 1991, pp.224-87.

소가 존재함에도 디스토피아로 그려진다. ‘커뮤니티’는 전쟁, 차별, 가난, 고통이 없는 ‘겉으로는’ 완벽한 사회이다. 이는 재앙들을 방지하고 완벽한 사회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통제할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 결과 구성원들은 색깔, 감정, 기억,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날씨, 지형, 직업, 이동수단, 공동체 구성원의 수까지도 통제당한다. 뿐만 아니라 임무 해제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안락사를 강행하는 끔찍한 면까지 존재한다. 이는 통일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유사하지만 구성원들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여겨지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토머스 모어는 책을 통하여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첫째,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⁴⁶ 유토피아는 귀족들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왕왕 생겨나는 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집필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모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세태에 대해 비판하며 이상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1부에서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데, 1부에 등장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이 바로 사회의 부조리함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어는 불안정한 사회 내에서 전쟁과 귀족들을 비판하며 이상 사회를 꿈꾸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토머스 모어가 막연한 이상주의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는 해석 역시 존재한다.⁴⁷ 유토피아 사회의 규범을 바라보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2부 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부 마지막에서 모어는 유토피아의 규범은 부조리하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것이 완벽한 이상 세계는 아닐 것이라는 뉘앙스를 띄운다. 이러한 해석으로 유토피아를 바라보면 완벽한 이상 사회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상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들은 진정한 이상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

46 윤유경,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타난 진정한 행복」,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p.4.

47 위의 논문, p.4.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유토피아 사회를 중심으로 이상 사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완벽한 이상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유토피아 사회 역시 진정한 ‘유토피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를 디스토피아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하는 만큼, 유토피아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토피아 사회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사회도, 그 반대도 아니다. 모든 사회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유토피아 사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토피아의 사회 규범 중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참고만 하며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어 자신도 유토피아가 완전한 이상 사회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기에, 유토피아의 규범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수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장려상

나에 대한 고찰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을 읽고

국어국문학과 박서현



▶ 형상화

형상화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 특히 어떤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이른다. 형상화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자마자 이는 나에게 있어 부족하고 또 부러운 능력임을 문득 떠올렸다. 나는 종종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지만... 어휘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예술성의 부족일지, 아마 둘 다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수려하게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독자인 나에게도 전해지는 듯한 모든 글들, 읽다 보면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완성되는 글을 쓰는 사람들 말이다. 그림도 마찬가지이고. 책을 읽기 전, 나는 이미 형상화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즉시 그것의 기본 모양을 상상으로 그려본다. 상상 속에서 그것의 구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물이나 형체 없이 그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한다는 것이다.’ 책을 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다. 아이디어가 떠오름과 동시에, 기본 모양을 상상하고, 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해내는가? 웬만한 일에도 음, 그렇구나. 하고 사고가 참으로 단순하게 흐르는 나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책에서 언급하듯, 형상화는 창조적인 인물들의 사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책에도 음악가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도 음악을 참 잘 만들어낸다. 그가 만들어내는 그의 감성이 가득 담긴 음악은, 나는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그 안에는 음악에 대한 전공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나는 알아챌 수조차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그는 이를 위해 수도 없는 시간 노력해왔겠거니, 그저 막연히 그려내며 그를 동경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능력 또한 형상화를 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 노래를 듣는 순간에 늘 그의 능력에 감탄하곤 한다. 형상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깊게 생각하게 되자 그가 더욱 대단해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형상화는 세계를 재창조한다.’ 나는 이것이 자신의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는 의미의 문장으로 들리곤 한다. 사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들을 객관적인 지수로 가려낼 수도 없으리라. 그가 그의 세계를 재창조하여 나에게 건네는 순간, 나는 그의 형상화된 세계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겠지. 나를 낭만적이지 않은가? 그가 그리는 세계의 형상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참으로 주관적일지도 모르는 능력이지만 나는 여전히 언제나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창한 능력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 닿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되새기곤 한다.

▶ 놀이

일 가지고 놀기... 라는 것이 가능한 건가. 예전부터 나의 미래를 고민할 때, 나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 진로를 고민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다. 어쩌면 본인이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으리라. 나 역시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왔던 터라 이 챕터를 피자마자 펜스레 피어오르는 의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사실은 나도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기도 하기에 더더욱이 그랬을지도. 물론 본인의 일을 너무나도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곤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과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단순한 의문을 가진 것이 다였다. 누가 나에게 너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물으면 나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할 듯하다. 내가 아직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인가? 사실 그렇다기엔, 세상에는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현저히 적지 않을까. 놀면서 일한다는 말에 경악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는지.

그는 일하면서 놀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을 가지고 놀았다.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다. 본인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건지, 막연하게조차 예상해보기 힘든 궁금증이 가득해진다.

다른 건 여전히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단 하나 알게 된 점도 있다. 책을 읽다 보니 그 사람들은 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했다.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담 없이 연구하고 그것에 몰두하다보니 성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다. 놀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그들은 어떤 규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그것을 대체한다는 점이며, 이야기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만든 서사규칙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톱 까놓고 하는 말로, 이게 말이나 쉽.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일의 성과를 안 쓸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될까. 우리의 사회는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한 결과주의 사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남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누군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본인의 일과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어떤 서사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일에 적용시키고 또 지켜나가는 게 일을 놀이로 삼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듯하다. 이 역시도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리라.

오늘날 아이들은 어떤 것이 고장 나면 즉각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 주로 낡으면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새것을 살 생각부터 한다. 아무래도 십몇 년 동안, 비교적 주체적인 성향을 가지기 어려운 교육 과정을 겪어오다 보니 어느새 나도 수동적인 것이 편해졌다. 내가 직접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해오는 게 더 쉽고 편한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를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나는 기본적인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아닐까? 내가 수동적인 것을 선호하고, 호기심이 딱히 없는 성격이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긴 하다.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러려니 수긍하기도 한다. 예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지금,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초적 충동과

감각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문득 선다. 어쩌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뤄왔던 일들 혹은 갖은 이유로 마음속 한 칸에 보관했어야 하는 일들을 도전해볼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꼭 가져야할 순간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는 시간은 분명 필요한 것임.

*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족할 뿐, 거기엔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목적을 설정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놀이는 단순히 즐기는 것, 즉 어떤 부담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저 무엇인가 하거나 만드는 즐거움의 추구 아니던가? 나는 흔히 직업만족도라고 말하는, 본인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다. 그리고 매순간 그들이 신기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일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그 전에 일단, 나는 일을 하며 놀 수 있는가? 아마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일을 하면서 놀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본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조금은 여유롭고 낭만적인 사회가 되기를 작게나마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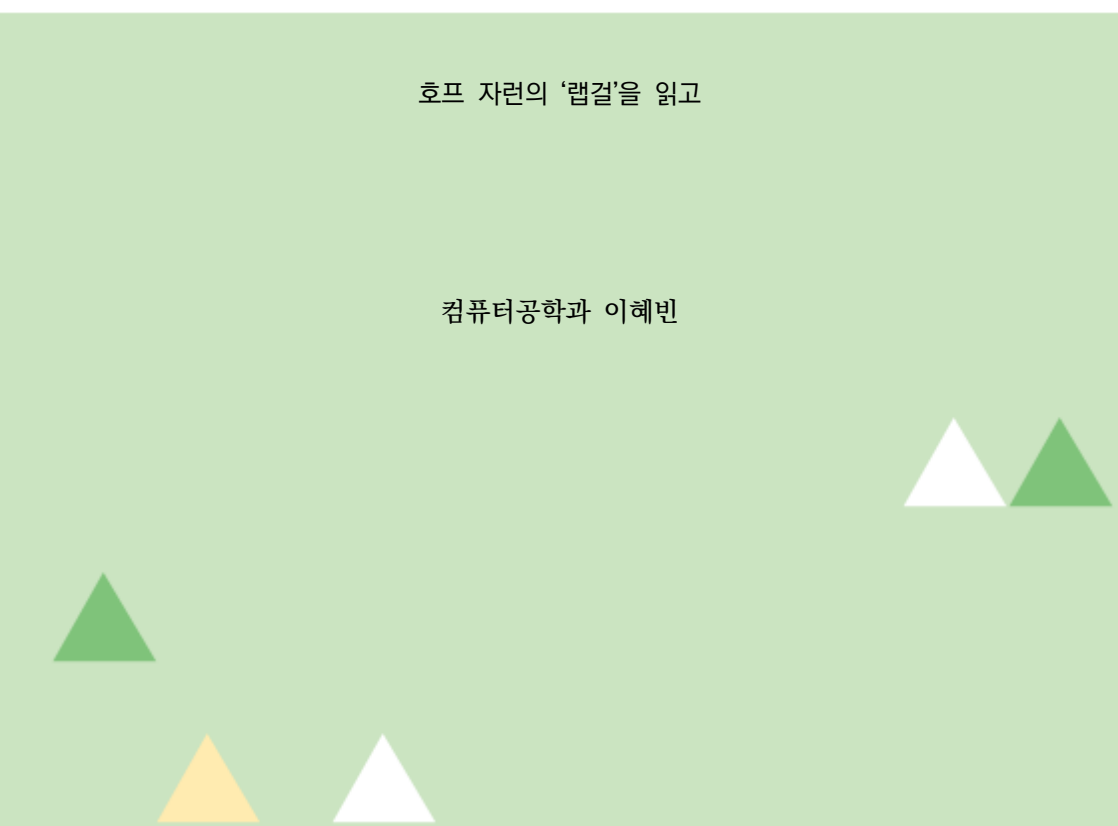


장려상

연구실의 소녀들을 위해

호프 자련의 ‘랩걸’을 읽고

컴퓨터공학과 이해빈



랩걸은 '연구실'과 '소녀'를 조합해 제목으로 삼는다. 이 제목은 한국어 '연구실 소녀'로 해석되지 않고 소리 그대로 쓰이며 느껴지는 위화감을 배로 만든다. 한국에서 Lab은 엄청나게 전문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Girl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어리고 작은 여자아이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아무렇지 않게 함께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진다. 똑같이 여성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본다하여도 연구실과 성인 여성을 조합한 '랩우먼'을 제목으로 삼았다면 이렇게 위화감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랩우먼은 커리어우먼과 같이 사회가 바라는 전문적이고 흠 없는 연구원 역할을 수행하는 젊고 차가운 여성의 모습을 그리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랩걸 만큼 절묘하게 어울릴 수 있는 제목은 없다. 연구실과 과학에 모든 것을 바치고 성장을 거듭하는 저자의 모습은 연구실을 자신의 전부로 두고 자란 소녀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의 뒤로 꿈을 키워갈 연구실의 소녀들을 향한 응원과 길잡이 그 자체의 책이기도 하니깐.

책을 쓰는 과학자들의 글은 매력이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설명하려 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어떤 현상을 조사하고 설명해 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을 직접 붙잡고 그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중히 물어본다면 그들은 기꺼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아는 연구자들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분명 원하지 않게 한참 흥미로운 설명을 그만두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들은 바쁜 사람들이고 대학 강의나 연구가 그들을 기다릴 테니까. 다행인 것은 그들이 애정을 담고 써낸 글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 남는 시간, 혹은 남는 시간을 만들어 내서라도 글을 쓰며 그저 책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과 독자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루해할지도 모르는 것만 걱정하면 된다. 설명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설명하는 동시에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책을 쓰는 과학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랩걸에서 식물과 과학에 관해서 저자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제시하고 친절한 표현을 애용할 때마다 저자의 다정함이 느껴졌고, 에필로그와 감사의 말 뒤에 따라온 덧붙이는 말에서 저자가 식물에 대한 지식과 인용을 자세히 설

명하는 것을 보며 엄청난 애정을 느꼈다. 그 덕분에 세상의 초록을 인식해 보기 시작했고 나무의 나이트가 일정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의 애정과 열정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감상이 든 누군가는 후원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를 열과 성을 다해 전달하는 모습이 읽는 이의 열정을 자극하기도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호프 저런 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대체로 식물을 향한 애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보다 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번갈아서 나왔을 것이다. 둘 중에 어느 한 이야기만 나오다 보면 과학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가 떨어지거나 어느 과학자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에 숨이 막힌 사람이 나가떨어져 버렸을 테니까. 저자의 삶은 책을 요약해 보자면 찌지에 적합한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이 전부 들어가 있는 인생이다. 얼핏 보면 녹색과 사랑이 가득한 낭만적인 삶처럼 들리지만, 책을 펼치고 나면 저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달린 유년기의 결핍이나 상처, 저자의 결혼과 함께 뒷짐을 지고 사라지는 미혼 여성을 향한 남성중심적 과학계의 무시와 차별 대우, 불안정한 연구실과 예산 문제 등을 마주하게 된다. 책의 초반에는 꽤 다정하게 느껴지던 세상이 저자가 활동을 계속할수록 점점 각박해지고 매정하게 느껴지다가 잠시 완화된 채 끝나는 이야기는 고통스럽게도 현실적이다. 저자의 광기는 읽는 순간 그 직전 선인장의 강인함에 대해 설명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고통이 생생히 느껴졌었다. 하지만 반대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긍정적인 저자의 모습에도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 충동적이지만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저자의 이야기에 꿈으로 향하는 길이 엉망이어도 나아갈 수 있음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책 후반의 저자가 결혼을 결심하고 아들을 향한 열정적인 모성애를 고백하고 나서야 마침내 찌지에서 예고했던 사랑이 나왔다고 환호하고, 이후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기를 자연스럽게 바랐을지도 모르겠다. 저자가 겪던 문제들의 해결에 결혼과 출산이 기여한 바는 있었지만, 저자의

사랑은 책의 시작부터 언제나 묘사되고 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빌에 대한 언급이 나온 순간부터 저자가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에 대한 묘사는 깊이 사랑하지 않을 인물을 향한 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에 몰두한 저자의 인생을 책에 옮기다 보니 저자와 결혼한 남성보다는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빌의 언급이 많은 것이 당연하기는 하다. 빌과 같은 친구를 얻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결혼하고 난 후에도 빌과 함께 연구하는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다. 로맨틱한 관계로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고난을 함께 겪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자의 시련에는 항상 성차별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저자가 학부생 시절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연구실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곳의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러 여학생도 느껴했을 감정이다. 동료 남성 연구원들의 무시와 거부는 당연하게도 묘사되어 있다. 임신한 여성을 연구실에서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이 든 남성은 한심할 정도이다. 저자는 이런 차별들을 인식하고 자신이 실행했던 대응을 적는다. 더 열심히 일하기, 더 열심히 얼굴을 비추기, 그냥 무시하게 내버려두기, 뒤에서 화를 내기 등이다. 저자의 대응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대응들 또한 여러 여학생이 자신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선택한 것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처가 완벽했던 완벽하지 않았든 그들은 여성 과학자들을 계속 무시할 것이다. 여성 과학자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까지 늘어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녀들에게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격려와 같은 위치를 얻어내고 사수하는 저자에게 깊이 감사한다.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절친인 빌의 한마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땡아 내리고 얼룩이 묻은 티셔츠나 입고 다니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는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듯하다. 하지만 저자가 남성이었다면 얼룩이 묻은 티셔츠는 전문성이 의심되는 여성 과학자가 아닌 열정적인 연구원의 상징으로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루어진 성차

별을 두고서 만약 피해자가 남성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것이 완전한 원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떠한 차별도 여성의 외관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 더 만만하고 약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요소인 건 맞지만, 남성들은 여성 과학자를 이미 만만하게 보고 있고 실력을 의심하고 있다. 이 또한 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 친구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준다면 그 정도가 적당하긴 하니까. 평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강박적으로 용모를 단정하는 여성들이 떠올라 인상 깊었을 뿐이다. 외관을 핑계로 여성이 어디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순간이 오길 바란다.

책을 다 읽은 후 독후감을 쓰기 위해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봤다. 돈을 벌기 위해 구한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학업과 논문에 열중하던 젊은 저자를 다시 볼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저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여성 과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가 결국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들도 자신의 커리어를 만족스러울 만큼 쌓을 것이고 이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음을 엄청난 다행으로 여긴다.





장려상

보완과 제약 사이

- 장애와 상호작용하는 과학 기술에 관하여 -

김초엽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고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박시은



기계는 나날이 발전하여 인간의 역할을 하나둘씩 대신하기 시작했다. 걷고 달리던 시대와 가마와 인력거를 타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이며, 오늘날에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기계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도 점점 더 많이, 긴밀하게 기계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청기와 휠체어, 의수 등이 그렇다. 이들 기계는 원래보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하며 사람의 몸과 연결된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 낸 일종의 ‘보완’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은 장애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 현재의 과학 기술은 어떠한 삐걱거림 없이 장애와 매끄럽게 상호 작용하는가? 어쩌면 그들의 고유한 경험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몸과 기술의 연결]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이 기계를 착용하여 첫걸음을 내딛고, 선천적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아이가 기계를 이용해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순간. 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스마트 기기를 타고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광경이다. 각각의 사례에서 기계, 즉 의족과 보청기는 사람의 몸과 결합하여 기능을 돕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몸과 기술의 연결이 항상 매끄러운 것은 아니다. 이 둘의 이질적인 연결은 많은 경우에 통증과 고통을 수반한다. 인체와 기계의 이음매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묘한 삐걱거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몸과 기술은 밀접하고 묘한 관계를 맺는다. 완벽하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 되는 것도 아닌 관계를 말이다. 김원영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애인의 신체는 이미 기술과 밀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얽혀 있는데,*

이 관계를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다.”

—『사이보그가 되다』 184쪽

한마디로 몸과 기술의 연결, 그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제약'이라는 부정적인 한계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완과 제약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이 장애와 상호작용하는 현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열다섯 이후 보청기를 접한 김초엽과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휠체어와 함께한 김원영은 기술로 삶을 보완하는 동시에 제약받는다. 보청기는 전보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청력을 보완했지만, 기계와 전원에 감각을 의존해야만 하는 삶의 제약을 가져왔다. 휠체어는 이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를 대하는 지금의 기술은 이토록 불완전하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다양성과 조화를 증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냈으니 말이다. 어쩌면 사회, 기술과 장애의 불완전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사이보그가 되다』는 이처럼 '기술'과 '장애'에 주목한다.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경험을 지닌 두 작가는 인간의 몸은 과학 기술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 머나먼 미래에 가능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 집중하며, "서로 다른 신체와 감각, 기술과 환경이 결합해 재설계한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질문한다.

[따뜻하지만 먼 기술]

장애인이 사용 주체가 되는 과학 기술은 흔히 '따뜻한 기술'이라고 불린다. 이 단어는 '첨단'과 자주 엮이며, 장애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첨단 보조 공학 기기나 첨단 인공지능 기술, 첨단 웨어러블 장치처럼

말이다. 확실히 이 기술들은 따뜻하다. 하지만 동시에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이들 기술이 보이는 주 무대가 박람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은 거액의 금액과 교환되므로, 일상에서 첨단의 따뜻한 기술을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 김초엽은 이와 관련해 “훌륭한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뿐이라면, 그 기술은 결코 보편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이보그가 되다』 78쪽)”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따뜻하지만 먼 기술은 보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비교적 가깝고 현실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책 속에서 김초엽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더 잘 듣는 일이 아니 (『사이보그가 되다』 35쪽)”라고 말한다. 예상과는 조금 다른 답변에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A가 부족하다면 A를 채우면 된다.’라는 단순한 구조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능이 좋은 보청기나 부작용 없이 완벽한 의약학적 치료가 유용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김초엽은 말소리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먼 미래에 도래할 완벽한 보청기나 청력 치료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과
그런 소통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내 삶을 실제로 개선했다.
그 기술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과 가까운 곳에 줄곧 있었는데,
오랫동안 나에게 선택지로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_ 『사이보그가 되다』 35쪽

이 구절을 보고 한 인터넷 강사의 말이 떠올랐다.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이 대다수의 인터넷 강의를 보지 못해, 유일하게 자막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의 나는 이를 듣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나 또한 인터넷 강의를 애용하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자막의 유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따금 ‘자막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자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해 보지 않았던 거다. 영상 밑에 작게 적은 글, ‘자막’이라는 간단한 기술이 현실 가까운 곳에 줄곧 있었음에도 그 학생에게는 선택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고차원적인 과학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단순한 선택지는 어쩌서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 때문일까? 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언제나 ‘미래를 기약하는 완벽한 기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약간의 시선 이동이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의 ‘자막’처럼 말이다.

[장애와 기술의 상호작용]

인간의 몸은 기술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진로를 자연계, 이공계로 정한 후에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질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보그가 되다』는 좁은 세계에 갇혀 있던 나의 시야를 확장해 주었다. 이 책을 읽으며 장애인에게 과학 기술은 어떤 의미인지, 재설계된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동안 내 생각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다. 특히 때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장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사이보그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와 회복만이 유일한 길처럼 제시될 때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은 끝없이 미래로 유예된다.”*
- 『사이보그가 되다』 38쪽

치료와 회복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렇기에 장애와 기술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시된다.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

지의 상당수가 기술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가 아닌 현시점에 집중한다면,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최첨단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이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 따뜻하고도 가까운 기술에 관해 고민해 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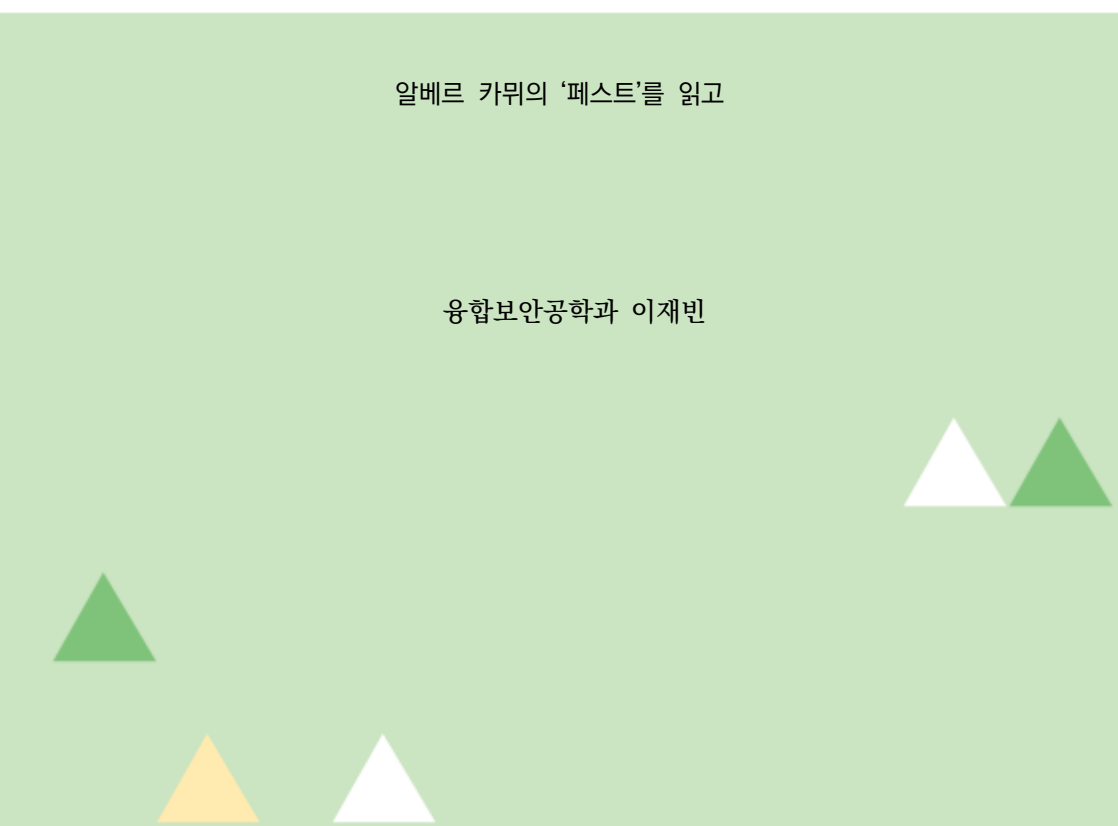


장려상

『페스트』를 통한 현대 갈등의 재조명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읽고

융합보안공학과 이재빈



길거리에는 죽은 쥐들과 사람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14세기 페스트로 변해 버린 유럽 대륙 길거리의 모습이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고립된 사람들의 변모를 다룬 페스트라는 책은 최근 닥친 우리의 비극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21세기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전염병'이 인간의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지, 알베르 카뮈가 묘사한 전염병의 창궐 이후의 변화들과 수 세기가 지난 현대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여러 갈등 양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도덕적 선택,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페스트』 속의 등장인물들은 전염병의 등장 자체를 불신하거나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감기가 아닌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국가에서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르랑시를 폐쇄한다. 폐쇄된 도시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작품의 초반에 묘사된다. 병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진과 시민들은 무기력하게 절망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고뇌가 심화한다. 등장인물인 랑베르는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을 불신하고, 파늘루 신부는 신앙심을 통해 질병을 이겨내고자 하고, 타루와 리외는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보건대'를 조직하게 된다. 타루와 리외의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재앙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해준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르다. (102p)" 알베르 카뮈는 비극속에서 각자의 독특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목적의 동질성을 알려준다. 책의 중반부에는 질병과 사람들의 공포감이 절정에 다다른 상황을 묘사한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거대한 비극에 동병상련을 느끼며 집단으로 행동해야 함을 깨닫는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을 보여준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랑베르는 타지에서 오르랑시에 취재차 파견 나왔던 기자다. 운이 좋았다면 이 사건과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자였다. 그는 감염되지도 않았고, 외부인이었던 자신이 전염병과 함께 간혀 있어야 함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던

인물이다. “행복을 택하는 것에 부끄러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랑베르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혼자서 행복하다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266p)” 이 구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랑베르는 결국 공동의 재앙 앞에서 이방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보건의대를 돕게 된다. 이어서 파늘루 신부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행동 양상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는 죄 없는 아이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에는 페스트가 물러가고 리외의 아내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결국 해방의 순간에도 비극의 영원한 소멸은 없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21세기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페스트와 비슷한 양상의 피해를 안겨주었다.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포와 불안이 커졌다.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하였으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원인 탓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면 소통이 줄어들었고,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다. 이웃 간의 도움이 줄어들고, 사회적 연대감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책 속의 오르랑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현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속의 기자 랑베르를 보고 격리를 하지 않던 무책임한 감염자들을 떠올렸다. 또, 매점매석 등을 통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작품 속 장사꾼들은 위생용품을 대량 구매해서 비싼 가격으로 되팔던 사람들이 연상되었다. 그 와중에도 보건의대를 설립하여 사람들을 도와주는 '타루'의 모습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도우려 나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이후 세기가 흘렀음에도 유사한 인간 군상들이 또다시 나타난다. 작가는 이를 통해 극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심, 회피, 절망 등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나는 이 도시와 이 전염병을 알기 훨씬 전부터 이미 페스트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말입니다.(313p)” 리외'

의 구절은 페스트와 같은 인류의 재앙이 우리 사회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지속해서 남아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과거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은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 다양한 형태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전염병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페스트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 그중 첫번째는 젠더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젠더 갈등의 심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 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며 여성과 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화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재택근무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에 내몰리며,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고립되고 소외되었다. 이는 카뮈의 『페스트』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염병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카뮈의 작품 속에서도 여성들은 전염병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고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세대 간의 갈등도 팬데믹을 통해 부각되었다. 젊은 세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빠르게 수용했지만, 노인 세대는 전통적인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청년 세대는 비대면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려는 반면, 노인 세대는 대면 소통의 가치를 고수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이는 카뮈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각 세대가 처한 상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르랑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들인 성직자들은 기도를 통해 전염병을 물리치려 하지만 주인공을 포함한 젊은 이들은 이 방법을 전혀 소용없는 일이라며 탐탁지 않아 한다. 여기서 한가지 『페스트』에서와 다른 변화가 존재한다. 고난 이후의 상황이다. 책에서는 후의 이야기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존자들 간의 친밀관계와 신뢰감

이 상승해 서로 유대를 느끼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MZ세대” 혹은 “X세대”같이 각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등장하며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은 심화하였다. 『페스트』에서의 상황과 달리 약3년간의 꽤 장기적인 고립된 생활이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갈등의 맥락에서도 팬데믹은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는 인간 활동의 감소로 인해 자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대기 오염이 줄어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연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환경과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카뮈가 묘사한 전염병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를 이렇게 정의한다.“페스트는 얼핏 보면 시민들에게 연대 의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군집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저마다 고독에 잠기게 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었다. (375p)” 사회적동물인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며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한다.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겪으며 작가의 의도를 몸소 깨달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보는 인간의 모습이, 비극 속에서는 이 평범함이 부각되고 특별해지게 된다.작가는 페스트라는 도구를 통해 위기에 직면할 때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성찰을 끌어낸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기 이후에 조금씩 안정화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페스트』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상관 관계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